

배워서 남주자!

세상을
변화시키는 **한동** 다셋.
스토리

세상은 받기보다 줄 때 바뀝니다.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주기 위해서입니다.
한동은 오늘도 외칩니다. 배워서 남주자!

"제가 배운 한동의 배워서 남주자 정신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2012 탄자니아 GEM(글로벌전공봉사) 최예은 동문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 우리는 한동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동대를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갈대상자' 참여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정기후원 신청 : 054-260-1063 / sarang@handong.edu / <http://sarang.handong.edu>

문자일시 후원 : #89491995 '갈대상자' 입력 후 발송 (1건 10,000원 후원)



- 1) 세상을 변화시키는 한동인 이야기 QR코드
- 2) www.handong.edu 확인

정의의 요구가 만족되어야

손봉호 (대표주간)



한국은 경제, 교육, 기술, 문화, 민주화 수준이 상당히 높은데도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매우 낮다.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고, 갈등지수는 네 번째로 높다. 세대, 이념, 지역, 노사, 여야가 분열되어 계속해서 반복한다. 요즘은 가정도 깨어져서 이혼과 가출문제가 심각하고 존속살해도 빈번하다. 민족도 쪼개져 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근 70년간 분단국가로 남아 있다.

한국 교계도 비슷하다. 사랑과 화평의 종교인 기독교는 사회를 조화롭고 화평하게 만드는데 공헌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자체의 평화와 연합도 이루하지 못한다.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진 민족, 사회, 가정, 교회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잃어버린 건강을 회복하고 나빠진 경기를 회복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다. 그러나 깨어진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쉬워 보이나 실제로는 어렵다. 계속 불행하게 사는 것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다.

분열과 갈등은 죄 때문이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본래적인 관계를 흠으려 버렸다.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자연을 다스려야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대신 뱀의 말을 믿고 순종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롬 1:25)으로 근본적인 질서를 파괴한 것이다. 하나님, 사람, 자연과의 관계가 비정상적이 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왜곡된다. 가인은 무고한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의 보호를 믿지 못한다.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보장하려 시도하다 갈등의 문화를 창조한다. 아담 부부의 범죄는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자연,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정상적인 관계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타락시켰다.

어느 것이 원인이고 어느 것이 결과인지 구분하기 어렵지만 정상적인 관계를 파괴하는 모든 죄에는 항상 교만과 욕망이 작용한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이해와 판단이 더 옳고 정확하다는 교만과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서까지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욕망

이 모든 정상적인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게 마련이고 대부분의 경우 강자는 가해자가 되고 약자는 피해자가 된다. 공정하지 못한 과잉 이익과 그에 상응하는 억울함이 생긴다. 즉, 정의가 파괴되고 마는 것이다.

파괴된 관계가 회복하려면 정의의 요구가 만족되어야 한다. 가해자의 회개와 해악에 상응하는 처벌이 있어야 한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빙자하여 피해자의 무조건적 용서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않거니와 바람직하지도 않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셨지만(마18:22) “내가 회개하노라”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하셨다(눅17:4). 회개하지 않아도 용서하는 것은 용

서를 받는 사람에게도 해가 된다. 잘못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용서를 받으면 고치지 않을 것이고 범죄를 반복하여 이웃에게 또 해를 끼칠 것이다. 그런 용서가 관계 회복을 가져올 수 없다.

진정한 회개는 느낌, 생각,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자신이 가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 배상하고 자신이 행한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을 감수하려 해야 한다. 삭개오는 누구의 재물을 토색했으면 4배나 갚겠다고 했다. 율법은 두 배를 갚으라고 명령했으나(출22:4) 삭개오는 그 두 배를 배상하겠다는 것이다. 그런 회개라야 용서가 가능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정한 관계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 영화 <밀양>에 등장하는 살인범처럼 남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하고도 자기는 용서받았다고 착각하는 뻔뻔함으로는 올바른 관계회복이 일어날 수 없다.

정의의 요구가 얼마나 심각하며 중요한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분명하게 가르친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죄를 그저 용서하시지 않으신다.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시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게 하셨다. 두려운 요구며 무서운 대가였다. 우리가 진 빛은 “한 톨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눅12:59) 탕감 받지 못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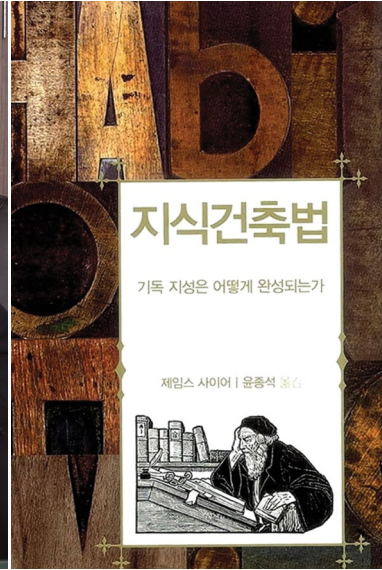
진정한 회개는 심히 어렵다. 다윗처럼 총명한 사람도 나단이 지적하기 전에는 우리아에게 가한 악행을 털끝만큼도 알지 못했다. 분열과 갈등으로 신음하는 한국 사회, 교회, 가정이 회복되지 못하는 것은 목살, 뽕뽕함, 핑계, 변명, 정당화, 맞대응만 판을 칠 뿐 진정한 회개가 없고 정의의 요구가 만족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의 교만과 탐욕이 우리의 눈을 겹겹이 가려놓은 것이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계 3:18).



손봉호 본지 대표주간,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암스테르담자유대학교대학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서울대 명예교수, 고신대 석좌교수이며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로 섬기고 있다.

Contents

WORLDVIEW · JULY · 2013



WORLDVIEW

2013년 07월호 WORLDVIEW 통권 157호



표지인물
롤 카이퍼

〈월드뷰〉는 우리 사회에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문화가 확산되기를 소망하며 기독교학문연구에 뿌리를 두고 발행하는 기독교세계관 전문잡지입니다. 일상 속 깊이 기독교세계관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 그리고 더 많은 이들에게 기독교세계관을 소개하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후원 국민은행 602-01-0667-971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COVER STORY

- 06 참여하는 그리스도인 _ 롤 카이퍼 Roel Kuiper (인터뷰어 : 최용준)
- 10 정치와 사회에 미치는 개혁주의 사상의 영향 _ 롤 카이퍼

SPECIAL

- 16 개혁주의 세계관과 한국 사회 _ 최용준
- 24 중재적 사회 · 문화 관점으로서의 칼빈주의 _ 신국원
- 32 개혁주의 서적을 소개합니다 _ 편집부

COLUMN

- 02 대표주간 정의의 요구가 만족되어야 _ 손봉호
- 36 주일학교 교사 멘토링 주일학교 교사 니고데모씨, 멘토 신국원에게 묻다! _ 신국원
- 40 HOW, TO, 주일학교 거룩한 읽기, 기독교세계관과 묵상 _ 이춘성

CULTURE

- 56 유머 육팔은 사십칠 _ 손봉호

BOOK REVIEW

- 46 서평 지식건축법 : 기독교지성은 어떻게 완성되는가? _ 유재봉

NEWS

- 55 사무국 뉴스



좌측의 QR코드를 이용하면 스마트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원문보기는 네이버 블로그 <http://cworldview.blog.me>에서 가능합니다.

사단법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는 삶과 학문의 전 분야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 확인될 수 있도록 제 분야에 대한 기독교적인 관점을 정립하고 이를 확산시키며 이와 병행하여 실천을 진작시키고자 하는 신앙과 학문의 공동체입니다.

대표주간 손봉호
발행인 김승욱
편집인 신효영
편집위원 김정호, 김지원, 권태경, 백승현, 송태현,
양성만, 이상무, 이우성, 장수영, 전요섭,
조영길, 황의서
자문위원 신국원, 이상정, 조성표, 최현일
교정/교열 김선경
객원/사진 장형규
디자인 황정희, 강새날
제작 주식회사 세상바로보기
인쇄 완산정판사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전화 02-754-8004
팩스 0303-0272-4967
주소 서울시 용산구 이촌2동 212-4
한강르네상스빌 A동 402호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페이스북 [facebook.com/cworldview](https://www.facebook.com/cworldview)
블로그 <http://cworldview.blog.me>
모바일매거진 m.worldview.or.kr



롤 카이퍼 Roel Kuiper 참여하는 그리스도인

인터뷰어 최용준 (한동대 교수, 실행위원) 사진 장형규 (객원사진기자)

지난 5월, 총신대학교에서 총회설립 100주년 기념
“세계개혁신교회대회 International Congress of Reformed and Presbyterian Churches”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다. 전 세계 많은 기독교학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네덜란드의 차세대 기독교 철학자이자, 상원의원인 롤 카이퍼 Roel Kuiper 박사를
그의 오랜 동료이자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실행위원인 최용준 교수(한동대)가 만났다.

Q1. 간단히 자신을 소개해 주시지요.

저는 암스테르담의 자유대학교에서 역사와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 후 기독교연합당(CU)의 연구소 소장으로 일했고, 1998년에는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교에서 기독교 철학교수로 임명되었습니다. 제 전공분야는 사회 및 정치철학으로, 기독교의 공적 윤리가 세속화된 사회에서 무엇을 의미할 수 있는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로 기독교정치철학 및 사회 윤리적 자본에 관해 책을 썼으며, 2007년부터는 네덜란드 의회의 상원의원으로 있습니다.

Q2. 한국을 방문하게 된 목적은 무엇인지요.

한국의 총신대학교가 주관한 총회 100주년 기념 ‘개혁주의 및 장로교회 국제 컨퍼런스’에서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정치와 신앙을 주제로 정치와 사회에 미치는 개혁주의 사상의 영향에 대해 강의하였는데, 한동대의 최용준 교수의 초청으로 한동대에서도 동일한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Q3. 한국 방문은 처음이신지요. 한국에 대한 인상은 어떻습니까?

이번이 첫 한국 방문입니다. 한국은 짧은 시간에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 첫 인상은 현대적이고 성공적인 사회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억에 남는 것은 한국의 재건에 기여한 개신교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입니다. 여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Q4. 개혁주의 사상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저는 개혁주의 사상의 탄생지인 자유대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자유대학교는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 1837-1920)가 설립한, 그의 개혁주의 정신이 살아 숨 쉬는 곳입니다. 여기서 공부하며 개혁주의 사상의 개념적 강점과 현대 과학 및 철학의 핵심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지요. 특히 기독교 신앙을 모든 학문에 연결시키는 방식이 저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지금은 저는 물론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도 이런 생각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Q5.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이며 네덜란드 의회의 의원이십니다. 교수이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텐데, 정치와 사회에 참여하고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는 소명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시민이자, 투표권자로, 사회의 일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정치적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섬기는 자이자 선한 청지기로 부름 받았습다. 이러한 동기들로 저는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기독교 정당에 참여하여 이 분야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속한 정당은 아브라함 카이퍼가 주창한 개혁주의 전통에서 시작합니다. 저는 그의 유산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봅니다.

Q6. 네덜란드 의회에서 상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활동하신 내용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덜란드 의회는 상원과 하원 양원제이며, 저는 75명의 상원의원 중 한 명입니다. 모든 입법은 상원의원의 인준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기독교연합당(CU)의 당수이자 지도자로 일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네덜란드의 사유화 정책에 관해 국회의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했습니다.

Q7. 한때 수상이었던 아브라함 카이퍼가 네덜란드 사회 전반에 미친 영향은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주의적 사상, 기독교세계관이 네덜란드 사회에 미친 영향은 어떠했습니까?

기독교세계관은 네덜란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족, 정치 및 종교의 자유에 강조를 두었지요. 교육의 자유 등 네덜란드 헌법의 '자유'는 기독교적 가치에 기반한 것입니다. 공적 도덕 또한 기독교 윤리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전히 문화적 유산으로 남아 있으나, 또한 새로운 자유주의, 개인주의 및 세속주의적 사상의 도전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이슈들과 연결된 문제들을 제기하면서 기독교적인 공적인 삶, 기독교 교육이나 의회, 법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기독교적 아이디어와 가치를 명확히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분명히 주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Q8. 100여 년이 지난 지금의 네덜란드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개혁주의의 산실이며 기독교 국가라 할 수 있을지요. 현재 네덜란드의 종교적 기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항상 네덜란드 내에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들 간의 팽팽한 긴장을 경험합니다. 전 국민의 20%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즉 개신교 및 가톨릭교도입니다만, 점차 그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정치 주류세력이 공적 영역을 중립화하려고 하면서 기독교의 영향력은 점점 더 축소되고 있구요. 그리고 무엇보다 달라진 점은 지난 몇 년간 이슬람 세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는 것입니

다. 이것은 과거 모로코와 터키 등에서 유입된 노동 이민의 결과라 할 수 있는데, 현재 약 100만 명의 모슬렘이 네덜란드에 있습니다.

Q9. 기독교세계관이 네덜란드의 정치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합니까?

불행히도 그 숫자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상원, 하원에서 기독교 정당은 이제 전체 의원의 2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기독교인들이 다수를 이룬 적은 결코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 정치적 영향력은 아직까지 상당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정부 내각의 한 부분이고, 아직 기독교적 윤리라는 유산이 남아있기에 때문입니다. 낙태 반대 정책, 노인 복지 정책 등에 관한 입법과 지속 가능한 환경 정책은 대부분 기독교 윤리에 의해 형성되고 검토되고 있습니다.

Q10. 학자로서 네덜란드와 한국의 기독교 학자들 사이의 교류와 협력을 개선하기 위해 조언을 한다면.

저는 한국 및 네덜란드의 기독교학자들이 서로를 필요로 한다고 봅니다. 한국의 기독교학자들은 매우 열심히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제 기독교학계에서 새로운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기독교학자들은 기독교적 학문의 깊이와 오랜 뿌리가 있지만, 동시에 세속화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저의 꿈은 보다 더 많은 기독교학단체들이 국제적으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 유럽, 남아공, 캐나다 및 미국 등의 기독교 대학들을 연계하는 국제적인 조직을 만들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국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세계관은 네덜란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족, 정치 및 종교의 자유에 강조를 두었지요. 교육의 자유 등 네덜란드 헌법의 '자유'는 기독교적 가치에 기반한 것입니다.

Q11. 정치와 사회에 직접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한국의 그리스도인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도 보다 더 한국사회의 정치적인 논쟁에 참여하고 관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조언해달라는 부탁을 많이 받았는데요. 제가 볼 때 정치적 이슈들에 대해 기독교적 입장을 대변할 인프라가 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체적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방문한 교회들과 새벽 기도 모임 등에서 만난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을 보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한국을 사용하셔서 아시아와 세계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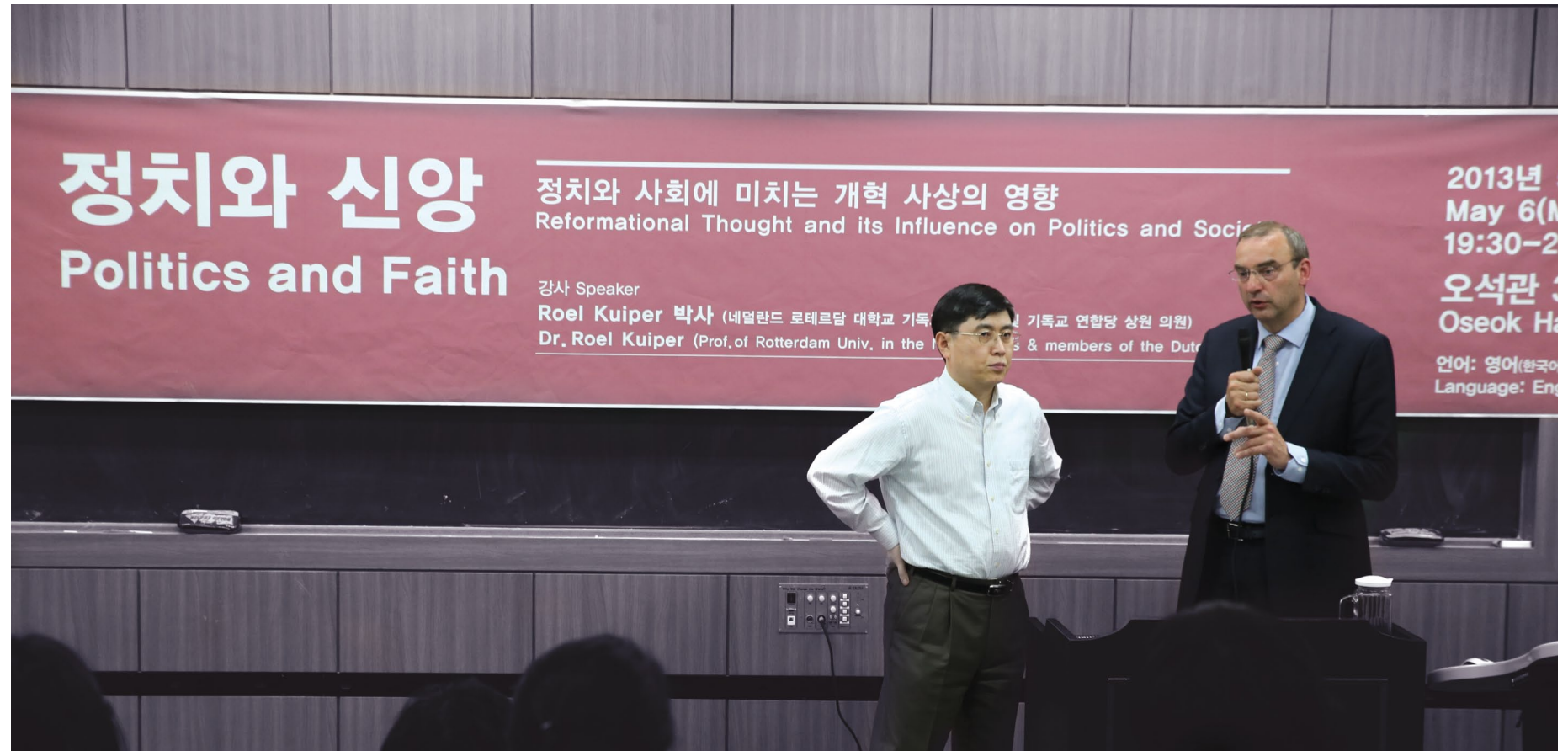


롤 카이퍼 Roel Kuiper 네덜란드의 사학자, 철학자, 정치인이자 대학 교수이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자유대학에서 철학박사를 받고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에서 개혁주의 철학 및 정치 및 사회 철학을 가르치고 있다. 국가정치체제의 개정과 세속화 되는 네덜란드에서 실천적 기독교 신앙을 실현하고자 네덜란드 기독교정당인 기독교연합(ChristianUnion)의 연구소에 있었다. 2007년 네덜란드 상원의원, 2011년부터 기독교연합 정당 지도자로 일하고 있다.

정치와 사회에 미치는 개혁주의 사상의 영향

📍 로 카이퍼 (네덜란드 국회의원, 철학교수, 박사)

**본 내용은 종신대학교 "세계개혁주의 컨퍼런스"와 한동대학교에서 강의한 내용을 편집부에서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아시아의 도전

1898년 가을, 개혁주의 신학자이자 네덜란드 수상인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는 칼빈주의 강연으로 미국을 순회하고 있었다. 그는 아시아의 몇몇 기독교인 집단을 알고 있었지만, 당시 아시아 지역에 확산되고 있는 이슬람과 이교도들로 인해 마음이 복잡했다. 많은 지도자들이 아시아가 크게 위협해 올 것으로 보았고, 카이퍼는 이를 기독교와 기독교에 적대적인 두 문명 간의 충돌로 전망하였다. 잠재적인 새로운 권력으로 일본과 중국이 부상하자, 카이퍼는 아시아에서 더 강력하게 선교활동이 이뤄지지 않았음에 안타까워했다. 아시아에서 이슬람과 불교가 기독교 신앙을 좌절시키고 방해하며 확산되자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의 영향력이 사라질까 두려워했다.

20세기, 인류는 역사상 가장 큰 인명과 재산피해를 낳은 세계대전을 겪었다. 일본이 아시아를 지배하려 했으나 좌절되었고, 무신론적 정치 이념이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가장 큰 적임을 공산주의는 입증해 주었다. 공산주의의 정치적 영향력과 신념이 많은 곳에서 무너졌지만 지금도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정권을 쥐고 있다. 세계 인구의 25%를 차지하는 중국과 인도 등 아시아의 거대 국가들이 급성장하면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문화를 개방하고 있는데, 그간 폐쇄적이었던 이곳에 기독교 신앙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다. 성령은 예기치 못한 방법들로 역사하신다.

아시아는 여전히 반(反)기독교적이며 최종 분투 중이다. 기독교신앙은 아시아에서 일부분을 변혁하고 있다. 문명의 충돌은 문명 안에서 일어난다. 어찌 보면 한국은 선구자이다. 한국에서는 기독교가 환영을 받았고 빠르

게 성장하였으며, 다른 아시아 국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 한국 기독교는 전례를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한국사회에 정치·사회적 변화를 일으키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였다. 한국의 기독교는 해방에 도움을 주었으며 민주주의로의 변화를 지지하였고 가정과 교육, 일터 그리고 사회적 윤리에 새로운 원동력이 되었다. 이러한 한국의 모습은 자유와 정신이 요구되는 다른 아시아 지역 국가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있다.

세계 역사의 흐름에 대한 카이퍼의 예견은 틀렸지만, 다른 면에는 옳았다. 그가 주장한 칼빈주의에 기초한 개혁적인 기독교세계관은 사회 안에서 그 힘을 발한다. 특히 신생 자유주의 국가 이면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다. 카이퍼는 세계관의 변혁적 힘을 설명하면서, 자유에 대한 추구가 변혁의 중심이 될 뿐만 아니라, 개혁적인 사고가 이러한 자유를 구체화시키는 사회의 원칙을

제안한다고 하였다. 그는 이것이 미국을 변화시켰으며, 이제 아시아에서 자리잡고 있다고 보았다. 개혁적인 기독교세계관은 그 잠재력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 세계의 문화 중 하나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모든 인간사의 생산적인 생각과 개념을 포함한다. 나는 개혁적인 기독교세계관이 '서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나머지' 특별히 아시아와 한국, 모두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보며 이를 조망하겠다.

개혁주의적인 정치사상의 핵심 개념

칼빈주의의 중심적 특징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깊은 경외에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므로 모든 지혜의 요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 주권 사상은 정치와 사회의 인식에 세가지 변화를 가져왔다.

1. [권위] 어떤 권력도 절대적일 수 없으며 이는 정의라는 더 큰 개념에 묶여 있다.
2. [사회성] 인간은 사회 안에서 서로를 섬기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다.
3. [책임] 각기 다른 사회적, 도덕적 실천들에는 적절한 권위와 책임이 따라야 한다.

먼저, 하나님만이 진리이시고 유일한 주권자이시다. 세상의 권세나 권력은 상대적이며, 하나님과 그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다. 모든 창조물과 권세들은 모두 그의 뜻대로 지어졌고 그와 관계되어 있다. 하나님과 그분의 창조물 사이를 가로막는 세력은 주어진 허용치를 넘어서는 것이다. 절대적인 권력은 없으며 자신의 의를 위해 행동할 수도 없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를 닮은 성품과 양심을 허락하시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하셨다. 이는 민주주의의 공적 생활에서 본질적이라고 판단하는 다른 모든 자유들의 모체가 된다. 모든 권력은 제한과 지배가 필요하다. 즉, 권력이 한계 내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대항하는 힘이 필요하다. 우리는 무너진 세상에서 본질이라 판단되는 올바른 명령을 지켜나가기 위해 힘과 권위가 있어야 한다. 권위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주어지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세워진다. 지구상의 모든 권력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하며, 인간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뜻에 매여 있어야 한다. 이것은 또한 '법'의 개념적 토대이기도 하다. 모든 권력은 더 큰 정의에 복종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가 있는 민주주의 사회의 본질적 개념이다.

두 번째로, 우리는 각기 다른 지위와 소명을 갖고 있지만 모두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중이다. 여기에는 지위나 계층의 구별이 없으며 근본적으로 동등한 상태다. 사회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루는 'Respublica'(공화국)이다. 공생하며 협력하는 모습은 몸의 각 기관과 비슷하다.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법의 차이는 거대한 사회적 결과를 낳았다. 칼빈주의 철학자인 요하네스 알투스우스(Johannes Althusius)는 사회를 '약속'에 기인한 결과이며 인간은 그 약속 안에서 서로를 '공동 삶의 동반자'로 여긴다고 보았다. 반면, 사회를 '계약'으로 맺었다고 생각한 몇몇 영국의 학자들은 인간을 '서로에 대한 적'이라고 보았는데, 토마스 홉스(Thomas Hobbes)는 <리바이던(Leviathan)>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믿지 못해서 계약과 강한 정부가 필요했고, 자신들의 권리를 확립하기 위해 사회 계약을 통해 자신을 보호해야만 한다고 했다. 알투스우스는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으며 연약하고 상처받기 쉬워서 '다른 이들의 봉사'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기꺼이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게 될지라도'(Politica, 22-23) 다른 사람들을 가치 없다고 여기지 말아야 하며, 다른 이들의 이익을 증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개념들은 우리가 현재 '시민 사회'라고 부르는 것의 굳건한 밑바탕이 되어준다. 사회는 사적인 관심이 아니라 공동의 관심에 의해, 개인의 힘이 아니라 공동에 의해 세워진 것이다. 이러한 시민사회는 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자들에게 주의를 기울이며 사회를 '약속'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게 한다.

셋째로,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각자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에 대한 각기 다른 공헌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된다. 공동에 의해 세워진 사회는 각자의 책임에 따른 연결망이기도 하다. 이 책임은 자유분방하지 않으며 다른 사회 구조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구체적인 환경에 맞는 규범적인 행동을 요구한다. 이 개념의 이해를 위해 아브라함 카이퍼는 '영역 주권론' 개념을 고안했다. 사회의 권위들마다 영향력을 미치는 그들만의 영역이 있고 각기 제한이 있다. 따라서 이들은 확실한 독립성을 지니며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는 국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모든 권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통치권을 받았고 하나님을 향한 책임이 있다. '영역 주권론'은 개인적·사회적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는 핵심적인 개념으로, 책임감 있는 실천을 구축하고 이러한 실천과 연관된 규범적인 원칙들을 따르게 돕는다. 사업가는 경제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윤리적,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인 원칙들에 대한 문제 또한 다뤄야 한다. 이러한 규범적인 원칙들에 대한 책임감 있는 반응이 공정한 사업가를 만든다. 영역이란 인간의 행동에 책임감 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실천을 구축하는 구조적인 설정이다. 이것은 이 사회의 서로 다른 책임감들을 이해하게 도와주며, 이러한 실천에 한 유효한 규범적인 원칙들에 따르도록 그들을 자극한다.

변화하는 세상, 변함없는 헌신

모든 권세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과 사회가 공동에 의해 세워진다는 것, 그리고 영역 주권론, 이 세 가지가 개혁적주의가 정치와 사회에 미친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개념이다. 개혁적인 칼빈주의는 최소한 북서 유럽과 북아메리카의 개신교 국가에서 다음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 민주적 지배와 법의 규칙의 중요성 같은 헌법 원칙
- 시민 사회를 공동에 의한 것으로 보는 개념에 대한 사회적 결합
- 규범적인 행동들이 필요한 구별된 사회에서의 각기 다른 책임을 위한 영역

이들은 모두 반대할 여지가 없는 것들이다. 물론 시민에게 과도하게 책임감을 요구하거나 정부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은 아닌지, 모든 사회구조에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기독교적 윤리를 설정하려는 것은 아닌지 등 다양한 비판과 평가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이전과는 다른 '세계화'라는 이전과는 다른 환경이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환경이 과거 변화와 변혁을 주도하던 개혁주의 세계관의 핵심적인 개념에 도전하고 있다. 세계의 변화 앞에 진전된 개혁주의 세계관의 적용이 필요하다. 개혁주의 세계관의 핵심개념인 권위, 사회성, 책임에 영향을 미칠 강력한 두 가지 변화, 세계화와 개인주의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우선, 세계화는 새로운 종류의 유토피아주의를 선보이고 있다. 이것은 개혁주의 사상의 권위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토마스 프리드먼(Thomas Friedman)의 말처럼, 우리는 '평면 사회'에 살고 있어 공간은 더 이상 결정적 제한이 되지 못한다. 세계화는 의사소통의 기술에 의존하며, 사업과 이직,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모든 문화에서 통용되는 행동 수칙이나 국제적 기준을 제공한다. 세계화는 자유분방하고 우세한 경제적 관점을 갖고 있는 세력들을 일으킨다. 새로운 권력의 국제적 구조로 다국적 기업과 은행 등 모든 경제적인 중추에 집중한다. 이것은 현존하는 권위들에 도전한다. 세계화는 지역적이고 문화적인 환경을 보지 못하며, 사회적 정의를 요구하지 않고 때로 법적인 기준에 무관심하기도 하다. 만약 권력들이 자유분방해지고 구조가 유동적이며 초국가적인 경제 산실에만 집중된다면 그것에 대항할 힘은 무엇일까? 사회적 정의나 법적인 기준을 초월하여 단 하나의 권력체제에만 집중되어 있어 지배하고 지도하며 대항할 힘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세계화 추세라도 각 국가가 사회를 작게 유지하여 지역적이고 문화적인 법의 원칙으로 정의의 기준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지배하고 지도하는 '대항하는 힘'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합의한 지역적, 문화적

으로 근접한 곳에서만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사회를 작게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다. 개혁주의 사상은 유토피아적인 꿈을 좇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할 것을 촉구한다. 매일의 삶 가운데 사회의 어려움을 방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우리의 관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돕게 한다. 사회의 필요에 고심하며, 정치적·사회적 책임을 지는 것이 기독교인들이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이는 사회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내가 시사하고자 하는 두 번째 도전은 개인주의의 관련된 것이다. 성경은 개인주의적인 것을 모두 부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개개인의 특성에 열린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참된 교육은 인간이 독립적으로,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는 개인으로 기능하도록 돕는 것이다. 문제는 개인주의가 아니라 개인주의의 분열이다. 이는 공동체나 사회적 책임에 매이고 싶지 않아 가상세계 등의 자아충족적 유토피아를 꿈꾸다가 다른 사람들과 고립되는 경우를 말한다. 안토니 기든스(Anthony Giddens)는 공간과 지역을 초월한 세계화로 인한 이러한 같은 현상을 '귀속성 탈피(disembedding)'라 부른다. 이는 사회적, 도덕적 자산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불러 일으킨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 매우 중요

하다. 사회의 이러한 필요에 공동체를 지향하는 기독교가 사회적 자산으로 많은 것을 제공하는 것이다. 기독교적 윤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책임감 있는 행동을 실천하도록 도덕적 자산으로 중요한 영향을 끼치리라 본다. 피할 수 없는 새로운 상황은 계속해서 전개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개혁주의 사상의 기본 개념을 신중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진정한 시민 사회에서 정의에 대한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변함없는 우리의 헌신과 노력이 필요하다.

문명 안에서의 갈등

미국을 순회하던 115년 전 아브라함 카이퍼는 문명들 간의 충돌, 서구의 기독교와 기독교가 아닌 아시아와 나머지의 국가 간 충돌로 기독교의 영향력이 점차 사라질 것을 두려워 하였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인도, 중국, 대한민국, 싱가포르 등에서 기독교가 성장했고 그들의 현대화 과정에 기독교가 함께 했음을 볼 수 있다. 갈등은 오히려 다른 곳에서 시작되었다. 사무엘 헌팅톤(Samuel Huntington)은 그의 유명한 저서 <문명 간의 충돌>에서 미래에 있을 세계의 갈등은 문명 간에 발생할 것이라 보았다. 그는 '냉전은 끝났다'고 선언하였다. 세계의 갈등은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문화로부터 비롯될 것이며 문명, 특별히 동쪽 이슬람과 중국 문화가 서양 문화와 서로 갈등하게 될 것이라 했다. 그러나 동남아시아와 한국을 보라. 동남아시아는 문화의 용광로이자 가마솥으로 불교, 유교, 이슬람 그리고 기독교가 나란히 공존하며 분투하고 있다. 이곳의 갈등은 문화 간에 비롯된 것이 아니다. 문화들 '안에서' 생겨난 것이다. 둘째로, 아직도 이데올로기 간의 갈등이 있는 한국이 있다. 남한과 북한은 냉전의 잔재로 아직도 분단되어 있다. 하지만 하나의 한국을 분단이라는 아픔으로 이끈 것은 문명 간이 아니라 주어진 문화 '안에서'의 갈등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개혁주의 사상이 정치와 사회에 어떤 영향과 결과를 가져오는지 살펴보았다. 사람, 사회, 권위, 그리고 책임감에 관한 개혁주의 사상은 문명 간의 충돌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것은 문명 안에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그와 교제하는 자유로운 존재라는 믿음과 양심을 존중하는 데에서 시작한다. 이것은 사회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모든 일의 기초이다. 이 기초적인 힘이 변화하는 세상에 생기를 불어 넣으며 사회를 변혁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아시아에서 열매를 맺어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꿔 놓길 소망한다.

개혁주의 세계관과 한국 사회

최용준 (한동대 교수, 실행위원)



지난 5월 2일부터 7일까지 총회 설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와 총신대학교가 주최한 국제학술대회 "세계개혁신교회컨퍼런스"가 총신대학교에서 있었다. 그중 동역회 임원의 논문 두 편을 소개한다.

한국교회는 지난 100년간 전례 없는 부흥과 성장을 경험했다. 특별히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장로교회가 이러한 부흥의 주류를 이루었다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현재 한국교회는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고 세계 최대의 장로교회들이 서울에 밀집되어 있어, 교회사적 관점에서 개혁주의의 성공적이고 모범적인 선교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한국교회는 근대화 과정에도 결정적인 공헌을 하여,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에 앞장선 것은 물론 교육 및 의료 사업을 일으켰고, 금연, 금주, 남녀평등, 절약, 정직과 근면, 직업 소명설 등 정신 개조운동을 실시하여 20세기 한국사회의 기초를 놓았다. 이러한 문화적 변혁 밑바탕에는 개혁주의적 세계관이 흐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선교 100년을 맞은 한국교회는 극심한 세속화의 물결에 노출되면서 교세는 위축되고, 교회 지도자들의 잇단 스캔들로 그 위상과 신뢰도가 바닥까지 추락하여 더 이상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또 개혁주의적 세계관이 강조되고는 있지만 학문, 정치, 경제 등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좀 더 일관성 있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서 역동적으로 일하고 계심과 곳곳에서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한다.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한국교회의 지난 100년을 회고하며 개혁주의 세계관이 한국사회에 미친 변화를 살펴본 후, 새로운 100년을 전망하며 어떤 패러다임으로 한국사회를 변혁할 것인지 나아가 글로벌한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보고자 한다.

개혁주의 세계관의 내용

개혁주의 세계관은 주로 네덜란드의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삶의 전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이 드러나야 함을 강조하면서, 세계관(wereld- en levensbeschouwing)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자 1880년 암스테르담에 자유대학교(Vrije Universiteit)를 설립하고 이렇게 말했다. **“이 세상의 어떤 영역도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라고 의지 않는 곳은 하나도 없다.”**

신칼빈주의(Neocalvinism)라고도 불리는 이 개혁주의 세계관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

1.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도 구속되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온전히 통합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의 삶을 성숙으로 나누는 스콜라적 이원론은 용납되지 않는다.

2.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고 질서 있게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후 이 모든 피조계를 다스리며 보존할 소위 '문화 명령'(Cultural Mandate)을 축복으로 주셨다.

3. 하지만 인간은 사탄의 유혹을 받아 금지된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타락하게 되었고 그 결과 모든 피조계가 죄의 영향을 받게 되어 지금 이 세상은 깨어지고 뒤틀려 신음하게 되었다.

4.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구속을 성취하셨고 이후 성령께서 오셔서 이 구원을 개별적, 교회적으로 적용하시며 마침내 완성하신다.

5. 우리 삶의 각 영역(교회, 국가, 가정, 기업 등)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나름의 책임과 주권이 있다. 따라서 어느 영역도 다른 영역에 주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영역 주권 soevereiniteit in eigen kring, Sphere-Sovereignty).

6. 피조세계의 구조와 방향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구조란 창조의 법칙 및 질서로,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의해 타락 이후에도 여전히 보존되고 있다. 반면 방향은 창조 규범에 대한 인간의 응답으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든지 아니면 그 반대이다.

7. 타락에도 불구하고 피조계의 완전한 파괴를 방지하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은 악의 확장을 억제하며 모든 인류에게 공평하게 베푸시는 비구속적인 선물이다.

8. 역사 및 개인의 내면에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불순종, 하나님 나라와 어둠의 나라 간의 영적 대립(Antithesis)이 존재한다.

9. 따라서 모든 생각과 삶은 궁극적으로 세계관에 의해 결정되며 이 세계관은 종교적 근본 동인에 의해 좌우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영역은 이러한 성경적 세계관에 의해 형성되고 인도되어야 한다.



근대 한국 사회의 개현

한국 역사는 다양한 세계관의 실험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조선에서 통일신라시대까지는 샤머니즘적 세계관이 지배적이었으나 그 한계가 드러나면서 불교적 세계관이 등장하여 고려시대에 국교로서 중심적 역할을 했다. 그러나 고려 말 불교가 타락하면서 문제점들이 드러나자 이성계는 조선 왕조를 창건하며 유교를 국시(國是)로 채택하였다. 19세기 후반 유교적 세계관의 한계점이 노출되더니 결국 국권을 일본에 빼앗기는 위기를 맞았다.

이러한 상황에 전파된 기독교는 새로운 대안으로 급부상하게 되었다. 주요 세계관들의 실패로 말미암은 영적·정신적 공허 및 진공 상태에 등장한 복음은 한민족에게 비취진 한 줄기 생명의 빛이었다. 따라서 '개화'를 주장하던 대부분의 선각자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였고 성경적 세계관이 그들의 삶은 물론 한국 사회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 되었다. 그 대표적인 요소들은 아래와 같다.

1. 만물의 기원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성경적 하나님 사상은 미신적이고 다신론적인 샤머니즘과, 신관이 모호하던 불교사상, 하늘을 신성시하던 유교적 신관을 극복하여 인격적인 창조주로 제시되었다.

2. 성경적 인간관 제시와 전통적 세계관 변혁: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문화적 대리인

으로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Coram Deo) 책임지는 존재로 인식하면서 한국의 사회 및 문화 구조에 큰 영향을 주었다. 운명론적 결정론에 빠지게 했던 샤머니즘적 인간관을 극복하였고, 노동의 중요성과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사상은 유교적 신분 사회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다. 수직적 계층구조를 수평적 만민 평등사상으로 전환한 것은 영국의 노예해방 못지않은 사회 변혁이라고 할 수 있다.

3. 남녀 차별의 극복: 당시 여성들은 유교적 남존여비 사상의 희생물로 남편의 소유물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남녀 평등적 세계관이 소개되면서 여성 교육기관(이화 학당 등)이 세워지는 등 보편적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으며, 여성들에게 참정권이 부여되어 여성들의 권익 및 리더십이 함양되면서 민주주의 발전도 가속화되었다.

4. 현대적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 청나라가 근대화된 일본과의 전쟁에서 패하자 선구자적 그리스도인들은 전통적인 유교적 교육 시스템을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과학 기술을 적극 수용하는 개화사상을 주창했다. 이러한 신교육을 통해 사회·문화적 개혁을 추진하여 교회만이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전반적인 교육 기반을 갖추게 되었고, 여기서 배출된 그리스도인 엘리트들은 교회는 물론 사회에서도 존경 받는 지도자들이 되었다.

5. 병원 설립을 통한 사회의 보건 증진: 많은 선교사들이 의료 선교를 병행하여 육적·영적 치유를 함께 진행하면서 과학과 신앙 간에는 어떤 불필요한 갈등도 없었고 여성 의사들도 배출되면서 한국 사회는 더욱 발전할 수 있었다.

6. 절약, 검소한 삶을 통한 경제적 자립 도모는 한국 경제 발전의 정신적 밑거름이 되었다. 특별히 1960년대부터 시작된 기적적인 경제 발전이 한국교회의 눈부신 성장과 거의 동시에 진행되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7. 현실을 보는 관점의 변화: 다신교적 샤머니즘을 극복하면서 합리적 사고방식이 장려되고 근대 과학기술도 발전하기 시작했다. 현실을 부정적으로 보는 불교적 세계관도 비판하여 좀 더 현실적이면서 능동적·적극적으로 삶을 개척해 나가도록 격려했다. 자유, 평등, 정의, 평화 및 인권의 가치가 소개되어 나라의 독립 및 민주주의, 언론의 발전에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 개혁주의적 문화관과 역사관은 시민운동 및 윤리실천을 통해 사회 변혁에도 공헌하여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의 인권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8. 한글성경의 보급으로 문맹률이 떨어지고 한자에 의존한 유교적 문화 극복에도 큰 공헌을 했다. 한문으로 적혀 보편적 접근이 어려운 불경이나 유교 경전들과는 대조적으로 한글로 기록된 성경은 평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었다.

9. 일제강점기에 복음을 받아들인 민족 지도자들은 자주 독립을 위해 헌신했으며, 해방 후 경제가 발전하고 한국교회의 위상이 높아지자 선교와 더불어 저개발 국가들은 물론 특별히 북한 동포와 지하교회들, 탈북자들을 지원하는 일에 앞장서면서 세계적으로도 공헌하고 있다.

이처럼 성경적 세계관은 전통적 세계관이 가진 결림돌들을 과감히 제거하고 새로운 패러다임과 대안적 비전을 제시하여 근대화와 문화적 개혁을 추진한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변혁해야 할 부분들은 남아 있다. 이것을 보다 자세하게 다루어 보자.

현대 한국 사회와 개혁주의 세계관

부흥을 거듭하던 한국교회는 이제 새로운 국면에 돌입했다. 교회는 퇴보하기 시작했으며 사회의 존경과 인정 대신 비판과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물질주의의 범람: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물질주의와 샤머니즘적인 현세 기복적 세계관이 침투하여 물질적 성공이 축복이라는 번영 신학(prosperity theology)이 지배하게 되었다. 무리한 예배당 건축으로 헌금이 강요되자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는 구약의 성전 개념과 신약의 교회공동체 개념을 혼동한 결과로 중세 가톨릭교회가 거대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 면죄부를 팔다가 종교개혁을 낳은 것과 유사한 오류로 볼 수 있다.

2. 교회의 분열: 특히 장로교회의 거듭된 지역교회적, 교단적 분열은 결국 사회 지탄은 물론 성도들을 상처 입히는 결과를 낳았다.

3.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미숙한 그리스도인들, 특히 교회 지도자들이 각종 스캔들, 표절 등에 진정한 회개와 책임을 회피함으로 교회의 위상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또 유교적 권위주의가 교회 제도에 스며들어 이에 반발하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사례도 늘었으며, 설교 본문이 일부 성구에만 편중되어 있고 성찬의 중요성은 경시되고 있다.



4. 기독교 대학의 세속화: 대부분의 기독교 대학들이 건학 초기의 기독교적 정체성을 잃고 대학 운영을 위한 상업적 논리에 밀려 무리한 정원 확장 및 교수 충원에 집중하면서 수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이 유입되었고 세속화는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5. 이슬람의 도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슬람은 한국에서도 그 영향력을 키워 가고 있지만 한국교회는 아직 이에 적절하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6. 다원주의의 확산 및 다문화 사회: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다원주의는 동성애, 성전환 등의 차별 금지법을 국회에 상정하고 있으며, 다문화 가정의 급속히 늘어나는 데도 교회는 여전히 한민족 중심의 목회에 머물러 있다.

7. 한국사회의 약 20%를 차지한다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문화를 형성하지 못하고, 각 분야의 기독교인 전문가들은 학문, 문화, 세계관 등의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 개혁주의 세계관도 지속되고는 있으나 21세기에 대안을 제시하는 진정한 사회 변혁을 일으키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개혁주의 세계관을 가졌다고 자부하는 한국교회는 이제 새로운 도약과 퇴보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진단할 수 있다.

미래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그렇다면 새로운 100년을 위해서는 어떠한 패러다임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앞서 지적한 문제들을 되짚어 보면서 해결책을 모색해 보자.

1. 물질주의의 도전: 개혁주의 세계관은 한국교회와 사회에 분명한 경종을 울려야 한다. 샤머니즘적인 기복 신앙을 철저히 뿌리 뽑고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음을 강조하면서 희년 정신과 초대교회의 공동체적 삶의 모델을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네덜란드의 저명한 볼 하웃즈바르트(Bob Goudzwaard) 교수는 경제는 이제 성장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신실한 청지기의 삶을 살면서 '돌봄의 경제'(economy of care)를 추구해야 한다고 하였다. 독일의 유명한 기독교 언론인 피터 한느(Peter Hahne)도 『Schluss mitlustig!: Das Ende der spaßgesellschaft(과욕은 이제 그만: 즐기는 사회의 종말)』에서 지나친 욕심을 자제하고 겸소한 삶을 살 것을 강조했다.

비슷한 논리로 기존의 천편일률적 교회당 건물에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하여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한 교회는 예배용 의자를 치우면 애잔은 물론, 언제든지 운동을 할 수 있는 체육관, 다양한 문화 행사가 가능한 공연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특별히 현대 사회는 복음적인 교회들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로잔 운동에서도 다양한 사회 문제들에 교회가 보다 더 온전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헌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는데, 그 창시자 중 한 명인 존 스토틀트는 『현대 사회와 그리스도인의 책임』에서 교회가 실업 해소에 공헌하기 위해 개신교 노동 윤리(근면, 정직, 청지기 정신, 검약)를 강조하는 동시에 놀이방, 유아원,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열린 청년 모임, 커피숍, 직업 훈련 등 실업자들을 고용하도록 하는 사역 방안을 제시하였다.

2. 특별히 많은 분열을 겪어온 한국 장로 교단은 이에 대한 반성과 진정한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나아



가 국내외적으로 좀 더 연합하고 긴밀히 협력할 때 한국 사회는 다시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목소리에 경청하게 될 것이다.

3. 한국교회의 윤리적 타락은 개혁주의적 세계관이 우리의 삶에 녹아들지 못했다는 증거이다. 이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제자도적 실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투명하고 깨끗한 한국 사회를 위해 개혁주의적 세계관을 가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성결하고 정직하며 투명한 삶으로 본을 보여야 한다. 교회가 기득권을 과감히 내려놓고, 투명한 재정으로 운영하며, 문제가 있을 경우 철저한 회개와 책임지는 자세, 그리고 탈권위적 패러다임을 보여야 한다.

또한 한국교회는 보통 설교 본문이 일부 구절에 치우쳐 있어 성도들도 영적으로 편식을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성경 본문 전체를 3년 단위로 나누어 골고루 선포하는 등의 균형 잡힌 설교가 필요하다. 그리고 잃어버린 성찬



의 축복도 회복해야 한다. 종교개혁 정신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성찬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바른 성찬을 회복하고 기념할 필요가 있다.

4. 기독교 대학의 세속화를 막기 위해서는 다시 개혁주의적 세계관으로 돌아가 학문과 신앙, 삶이 온전히 통합된 모델을 이뤄야 한다. 교수들이 먼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본을 보이고 다음 세대를 책임질 기독 인재들을 키워야 한다. 나아가 대학은 물론 유치원에서 초중고까지 모든 교육이 교회 및 가정과 삼위일체를 이루어 전인적이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져 사교육없이도 훌륭한 인물들을 키워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어야 한다.

5. 한국교회는 교단적 차원에서 이슬람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주일학교 공과에 이슬람에 관한 내용을 실어 학생들을 가르치고, 목회자 및 평신도들에게도 자주 다양한 방법으로 이슬람적 세계관과 무슬림

에 대하여 교육해야 한다. 전도에 열정적인 무슬림에게는 그리스도인의 복음을 향한 새로운 열정과 헌신이 최선의 대응책이 될 것이다. 무슬림에게 관심과 사랑, 존경심을 가지고 우정을 쌓으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인내해야 한다. 그리고 이슬람에 대한 지식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고 대화하며 구체적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6. 포스트모더니즘적 상대주의가 지배적인 사조가 되면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국교회는 외면당하고 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개혁주의적 세계관은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동성에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을 통해 교회의 입장을 한 목소리로 낼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다문화 사역은 한국교회가 적극 발전시켜야 할 모델이다. 한국은 이미 다양한 민족이 공존하는 글로벌 사회로 변모되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그의 순종을 통해 열방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거하는

이방인이나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이웃처럼 사랑해야 했다(출 22:2-1;23:9). 신약의 교회들 또한 대부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된 다문화, 다인종 교회였다(갈 3:28). 앞으로 국내외 교회들도 다문화 사역을 통해 진정한 '보편적 교회'(universal church)로 거듭나는 패러다임 쉬프트가 일어나 모든 민족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것이다.

7. 각 분야의 전문 그리스도인들은 부르심을 받은 영역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기독 문화를 창달하여 한국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지구촌에 진정 글로벌한 공헌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기도하며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이 원론에 빠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주권을 드러내며 구속되도록 헌신해야 할 것이다.



최용준 한동대 교수이자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실행위원이며 VIEW(캐나다 밴쿠버 기독교세계관 대학원) 및 ETF(벨기에 복음신학대학원) 객원교수이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필라델피아 웨스터민스터 신학원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를 거쳐 남아공 포체프스트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독일 쾰른한빛교회, 브뤼셀한인교회 담임목사와 KUIS(한반도국제대학원) 교수를 역임하였다.

나오며

20세기 한국 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경험했다. 복음이 들어오면서 중세적 전통사회가 근대 시민사회로 탈바꿈하였고 경제 또한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였다. 나아가 이제 한국 사회는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 다른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입장이 되었고 그만큼 다문화, 다문화 사회가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교회 및 개혁주의 세계관은 나름대로 적지 않은 공헌을 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새로운 100년을 맞이하는 한국교회는 현재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러한 위기는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축복의 전기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개혁주의 세계관의 본질을 회복하고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동시에 전 세계에 흩어진 한인 교회 및 세계 교회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이 땅에 도래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본 칼럼은 지난 5월, 총회설립100주년기념 세계개혁교회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최용준 교수님의 논문 "Reformed Worldview and Korean Society"를 주최 측에서 번역하여 저자의 허락 및 확인 하에 본지 편집부에서 요약한 것입니다. **



중재적 사회 · 문화 관점으로서의 칼빈주의

신국원 (충신대 교수, 실행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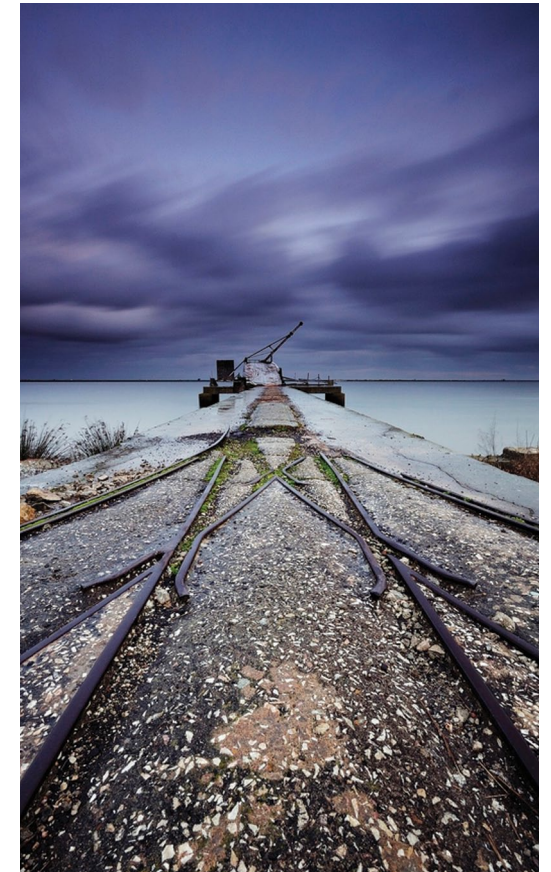
한국교회는 기록적인 성장과 열정적인 선교로 세계 기독교를 매혹시켜 왔다. 그러나 양극화된 사회와 개혁주의 세계관에 근거한 신학적 성향을 놓쳐 극단을 조율하는 능력을 상실함으로써 쇠락의 위기에 봉착했다. 과연 한국교회는 잃어버린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가.

교차로 위에 있는 한국교회

한국의 기독교인들, 특별히 지식인들과 신학자들은 한국교회가 그 규모와 잠재력에 비해 사회 · 문화적 영향력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사실에 아파한다. 이미 외국 선교사들은 한국 기독교인들이 삶과 문화를 변혁시키는 칼빈주의적 가르침에 수용적인지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이것은 칼빈주의가 한국사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후기 한국교회는 사회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거꾸로 예기치 못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위기의 본질은 2004년 KBS 1TV <선교 120년, 한국교회는 위기인가?>에서 제시되었다. 한 유명인은 한국교회가 더 이상 성장을 못해서가 아니라, 성공이 그들을 자만하고 오만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위기에 처했다고 하였다. 한국교회는 사회적 책임은 태만히 하고 대신 경쟁적으로 교회 성장에만 힘을 쏟았다. 그 결과, 교회와 교회가 서로 멀어졌을 뿐만 아니라 사회와도 멀어지기 시작했다.

한국교회가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근본주의자였다. 그러나 국제적인 어려움과 외세의 침입으로 거의 몰락해가는 한국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현대적인 교육, 의료, 그리고 사회 · 정치적인 자유를 증진시키는데 힘을 쏟았다. 교회는 보수적인 신앙과 문화를 통한 진보적인 참여 사이에서 건강한 균형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균형은 일제 당국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선교사들이 정교분리 정책을 채택하면서 처음으로 와해되었다. 이러한 균형의 상실은 신학적 갈등이 일어날 때 깊어졌다. A. J. Brown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라가 개방된 이후 처음 25년의 전형적인 선교사는 청교도였다. 그들은 우리 뉴잉글랜드 선조가 한 세기동안 했던 방식으로 안식일을 준수하였다. 그들은 춤, 흡연, 화투를 죄로 여겼고 그것을 마음껏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고 보았다. 신학과 성경에 대한 비평에 있어서는 그들은 철저히 보수적이었고 예수님의 재림에 있어서는 전천년왕국설을 대단히 중요한 믿음으로 유지하였다. 고등비평과 자유주의 신학은 위험한 이단으로 여겨졌다.” (A. J. Brown, In The Mastery of the Far East: the Story of Korea's Transformation and Japan's Rise to Supremacy in the Orient)

문서설(모세오경을 모세의 저작으로 인정하는 전통적인 견해와 달리 후기에 여러 문서들의 편집으로 완성되었다는 가설)을 선전한 김재준을 당시 근본주의의 투사이자 평양신학교장인 박형룡이 “자유주의”로 기소하였다. 이 논쟁 이후, “자유주의”는 근본주의 신학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가 되었으며, 근본주의는 교조주의적 경향을 갖게 되었다.

일본의 신사참배 강요는 당시 큰 문제였다. 관대한 신앙과 인본적인 경향을 지닌 자유주의자들은 이를 종교적 의미가 없는 국가적 제의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근본주의자들은 타협하지 않았고 그것을 우상숭배로 거절하였다.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체포되고, 추방당하고, 심지어 순교를 당했다. 보수적인 평양신학교도 1938년에 폐교되었다. 박해는 영적인 영역의 보수주의까지 후퇴시켰다.

현지화 정책과 다원주의에 대한 토론은 신학적 양극화를 가중시켰다. 1960년대 국제무대에서 신(新)민족주의가 식민사관을 극복했듯이, “자유주의”가 한국에서 토착적인 신학을 구축하였다. 보수주의는 이러한 토착화 현상이 한국교회를 역사적인 기독교에서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이끈다고 보았다. 토착화 현상을 선전하던 신학자들이 종교다원주의를 이끌며 양극화는 더욱 깊어졌다. 한 유명한 자유주의 신학자가 통일교(문선명을 추종하는 모임)를 “통일교의 교세적인 측면, 내부의 체계화된 결집력이라는 측면, 상상력과 창의력의 측면에서 한국 신학 최고의 작품”이라고 찬양하였고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이를 이단의 허용으로 이끌 것이라 보았다. 그러나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사이의 극단적인 양극화는 1960년 초 민주화 과정에서 발



생하였다. 보수주의자들은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강조하던 식민주의 시대부터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소리를 내지 않았다. 강력한 반(反)사회주의 기조가 유지되던 시절, 보수주의자들은 로마서 13장 1절에 근거하여 권위에 순종할 것을 주장하였다. 보수주의자들이 군부독재에 의한 압제와 인권유린에 대하여 예언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반면, 자유주의자들은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사안에 항상 더 민감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자유주의 신학의 한 형태로 민중신학을 발전시켰다. 보수주의는 사회·경제에 대한 마르크스적인 관점과 결합한 민중신학을 특별히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렇게 긴장과 양극화는 진행되었다. 복음과 교회성장, 선교를 통한 영혼구원을 우선으로 강조한 보수신학은 큰 교회를 세웠으나 사회·문화적인 영향력은 미비했다. 보수주의적 교회는 “성경”에는 신실한 태도를 보였지만 역사의식이 약하고 사회 맥락으로는 충분히 접근하지 않아 사회현실에 대처하는 능력이 약

“잃어버린 10년”이라 불리는 시기에 일어났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보수적인 정권을 강력히 지지하고 우익세력을 편들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최근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의 죽음은 한국사회만큼이나 한국교회도 분리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보수주의자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을 비판하였고, 김대중 대통령이 국립묘지에 안장된 것은 합당치 않다고 여겼다. 그에 반면 자유주의자들은 그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큰 연대를 보였다. 기독교인들은 보수신학과 자유주의 신학에 따라 훨씬 많이 나뉘어져 있다. 한국교회는 이러한 문화 지체를 극복할 방법을 찾고, 전도와 사회·문화 참여 사이의 중대한 균형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세 가지 개혁주의 사회·문화 계획들

그러나 희망적인 신호들이 있다. 몇몇 칼빈주의자들은 극단적이며 보수적·근본주의적 교회의 이원론이 세계관, 학교, 사회·정치적 관습, 이 세 가지 원리와 전략적인 면에서 잃어버린 균형을 회복하는데 공헌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했다. 기록적인 성장이었으나 그에 상응하는 책임감은 성숙하지 못했다. 한국교회는 사회적 관심에 태만하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실패했으며, 도피주의와 미신적인 기복신앙과 인본적인 이기주의에 빠져 버렸다. 게다가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를 성장에 뒤편으로써 물질주의를 낳았다.

지금 한국교회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가톨릭 신자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있고 심지어 불교도도 증가하고 있지만 오히려 개신교 교회는 감소하고 있다. 이는 개신교 교회가 신뢰성을 상실했다는 하나의 신호이다. 언론, 영상, 비정부기구들, 영화, 협회 등 다양한 경로에서 개신교를 비판하고 있다. 교회는 지난 30년의 급격한 문화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고, 정부가 진보적·자유적이었던 최근의 10년은 더욱 그러했다. 한때는 한국교회가 문화와 사회를 이끌었으나 지금은 그 반대가 되었다. 한국 기독교는 교차로에 있다. 반기독교 정서와 비판은

먼저, 기독교세계관 운동은 나머지 두 운동의 기반을 제공하는 것으로 기초가 된다. 기독교세계관 운동은 1970년대 중반 학생들의 스터디 그룹에서 시작되었다. 보수적이며 복음주의적인 학생들에게 기독교세계관 운동은 사회주의적·무정부주의적 과격한 민주혁명운동의 대안으로 그들의 의식화 운동과 비슷한 방법으로 발전되었다. 보수주의적인 학생들은 신앙과 삶에 대한 총체적인 세계관, 사회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비전, 두 가지 측면에서 기독교세계관 운동에 매료되었다. 기독교세계관 운동은 마르크스·무정부주의적인 사회·정치 운동과 전통적인 이원론, 경건주의의 기독교라는 극단의 갈등에서 시작되었다.

“도움말 **보수주의, 근본주의** : 보수주의 신학사상에는 여러 신학사상이 있고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약간의 혼란이 있지만, 보통 역사적 기독교를 옹호하는 신학으로 개혁주의, 근본주의를 포함하고 있다.



이후 기독교세계관 운동을 주도하던 학생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지도자가 되었다. 기독교학문연구소(KACS, 現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는 이들 중 학자가 된 이들에 의해 구성되었다. 기독교경영연합, 기독교교사연맹, 누가의사회, 한국라브리, 기독교변호인연합, 기독교예술인연합 등 수많은 다양한 조직들이 생겨났다. KACS와 관련된 학자들은 기독교대학들이 연구와 교육을 신앙으로 통합하도록 도우며, 학술저널을 발간하고 있다. 이제 기독교세계관 운동은 너무나 유명해져서 기독교 활동의 기반으로 간주된다. 세계관 운동은 이원론과 극단을 조율하는 문제를 극복함에 중요한 열매를 낳았다.

두 번째 운동은 “미션스쿨”과는 구별되는 의미의 기독교 학교 운동이다. 복음적이던 미션스쿨은 점차 후기에 이르러 예배(채플)와 성경연구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그 교육

과정은 신앙과 배움을 분리하여 이원적이다. 기독교교육의 개념은 통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창조, 타락, 구속의 세계관은 인본주의, 윤리적 낙관주의, 다원주의, 실용주의를 암시하는 하나의 규정된 교육적 지위의 대안으로 기능하는 교육적인 이데올로기이다.

1990년대 중반에 시작된 홈스쿨 운동 또한 계속적인 성장을 경험했다. 홈스쿨은 오늘날 146개의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한다. 이들 중 대다수는 자신들의 근본적인 존재이유인 개혁주의 전통으로 정형화된 기독교세계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세 번째, 기독교윤리 운동(CEM)은 칼빈주의 기독교의 사회·문화적 공헌에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일어났다. 서울대학교 한 윤리학 교수의 지도하에 시작된 기독교윤리 운동은 독재정부 아래 사회적 음

직임을 완성하는 방법으로 사회와 문화에 참여하였다. 기독교세계관 운동과 기독교학교 운동이 원리와 교육에 초점을 두었다면, 기독교윤리 운동은 실제적인 행동에 중점을 둔다. 기독교윤리 운동은 다양한 시민변혁 운동의 전략적 연합을 이끌었던 한국의 첫 번째 비정부기구 중 하나였다. 기독교윤리 운동은 청교도의 모든 덕목이었던 중용, 성실, 진실로 시작되었다. 정당한 선거운동에 적극적이었으며, 외설적이고 폭력적인 프로그램을 체크하기 위해 미디어 모니터링을 설립하였고, 교회개혁 운동도 시도하였다.

기독교윤리 운동의 사회적인 행동은 혁명이 아니라 개혁주의를 지향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나타내며, 자신들의 문화적 비평을 형성한 학자, 변호사, 예술가, 그리고 목사로 구성된 “문화전략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들 구성원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나 국립영상물등급위원회 등과 같은 몇몇 국가 위원회를 돕고 있다.

물론 이 세 가지 운동을 네덜란드의 청교도나 미국의 신칼빈주의의 영향에 비견할 수는 없다. 한국은 샤머니즘, 불교, 그리고 유교 등을 포함한 종교다원주의의 5,000년의 역사를 가진다. 지난 100년은 근대서구이념이 밀려들어오면서 심각한 갈등이 야기되었고 더욱 다원화되었다. 한국교회의 역사는 이제 120년이 겨우 조금 넘는다. 신앙과 삶의 통합은 여전히 도전적인 과제이며 풀어야 할 숙제이다. 칼빈주의의 공헌은 잠재적이고 전망으로 남아 있어 수행해야할 과제이다.

한국사회를 위한 칼빈주의 유산을 다시 살리기

오늘날 세계는 “문명의 충돌”의 영향을 받았으며, 다양한 이념적 투쟁을 아우르는 국제정치는 문자 그대로 “문화전쟁”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보수주의와 자유주의를 망라하는 하나의 전면전이다. 오늘날 세계는 대중문화의 다원주의적 분위기가 도덕규범의 공통분모에 대한 존재 가능성을 약화시키면서 문화에서 성경적 규범을 찾기란 어려운 일이 되었다.

특히 한국사회는 지난 세기 동안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기독교에 대한 사회·정치적 입장 또한 동요하고 있다. 일제강점기에는 자유주의가 복종적이었던 반면, 보수주의는 국가주의적이었고 일본 제국주의와 신사참배에 반대했다. 그러나 독재시대에는 자유주의가 정부에 비협조적이었던 반면, 보수주의는 정부에 비교적 협조적이었다. 또한 보수주의가 다원주의적 문화에 비호의적인 반면, 자유주의는 다원주의적 문화에 호의적이었다. 보수주의가 친자본주의적 성향이라면, 자유주의는 친사회주의적 성향이다. 이러한 사회·정치적인 차이는 경쟁의식과 상호 적대감에서 비롯된 신학적 입장 차이를 강조한다. 이들의 신학적 차이가 교리는 물론 사회·문화적인 이념과 책무에 대한 이견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것은 명백하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한국은 여전히 선교지라는 것이다. 한국교회가 유례없는 성장 중이어도, 한국은 “기독교 국가”는 아니다. 한국 사회에 한국교회가 미치는 영향이 미비한 것은 한국교회의 성향이 조용하기 때문이다. 한국사회는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에서 발전과 성장을 추구하며 적응하고, 대응하는 데 우선권을 둬므로 계속된 변화 속에서도 안정을 추구해왔다. 이로 인해 교회는 안정과 평화의 안식처로 보수신앙을 굳건히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바로 이러한 안정적인 성향으로 인해 전체 기독교 인구의 70% 이상이 장로교인임에도 사회와 문화의 적극적인 변혁에 참여하는 개혁적 성향이 적은 주요한 이유이다.



게다가 의식적인 칼빈주의마저 점점 이원론적 신앙을 배워간다. 이원론적 세계관에 함몰되어 자신들의 선지자적 의무를 망각한 채, 사회·문화적인 넓은 시각을 잃어버렸다. 신앙주의, 도피주의, 신비주의, 개인주의는 이러한 시각을 잃어버린 수용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것들이다. 결국 교회는 사회·문화적인 영향들을 상실하게 되었다. 지금 보수 교회는 다원주의, 양극화, 변덕스러운 사회·정치·문화적 환경 속에서 균형 잡힌 성경적 시각으로 어떻게 미래를 대응할 것인가 고심해야 하는 어려운 도전에 직면하였다.

칼빈주의자들을 통해 한국 기독교사회는 논쟁의 한가운데에서 균형잡힌 사회·문화적 관점을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존 칼빈은 어수선한 종교개혁 시대를 살아가면서 문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로 “하나님의 주권”, “창조명령”, “전적부패와 구속”, 그리고 “일반은총”을 강조하는 삶에 대한 특별한 관점을 개척하였다. 특히 그는 가톨릭과 루터라는 보수주의자 사이에서,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급진파와 재세례파 사이에서 분명한 중도의 길을 걸었다.

칼빈의 삶에 대한 균형잡힌 사회·문화적 관점은 다양한 곳에서, 각기 다른 상황과 시기에 성공적으로 적용되었다. 가장 좋은 예는 16-17세기 영국과 미국의 청교도 시각과 19-20세기 네덜란드의 문화에 대한 신칼빈주의적인 관점이다. 각각은 특별한 사회·문화적 정황에 관련된 기독교적 삶의 방식을 회복시켰을 뿐 아니라 평화와 정의를 증진시키는 힘도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은 동일한 지혜가 오늘날 한국사회에게 균형잡힌 시각을 찾을 수 있게 할 것이라 본다.



오늘날 한국의 사회·정치적 배경은 신칼빈주의적인 경험이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이 특별히 많다. 그러나 전통은 쉽게 이식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전통은 죽은 자들의 살아있는 믿음이다. 만약 강한 전통이 교조적인 방식으로 적용된다면 “죽은 통설”로 화석화 될 수 있다. 그래서 전통은 반드시 재해석되어야 한다. 종교개혁 시대의 옛 지도자들이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semper reformanda)라고 말했던 것처럼 전통주의가 아닌 전통은 반드시 높아 평가되어야 하고 계승해야 한다. 한국은 한국전쟁, 좌우 이념갈등, 경제정의를 향한 투쟁으로 인한 깊은 상처를 치유해야 하는 신생민주주의 국가이다. 살림은 기독교 담론에서 가장 긴급한 주제이다. 변혁적인 시각을 잃지 않으면서도 그 목표는 평화와 정의여야 한다. 이제는 화해에 주안점을 둘 때이다. 과

거에는 정반대의 입장에 주안점을 두었지만, 이제는 다원화된 사회라는 관점에서 일반은총을 강조할 때이다. 칼빈주의자들이 지금까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Soli Deo Gloria), “왕을 위하여”(Pro Rege)를 강조 해왔다면 이제는 사람을 향한 사역만큼 평화를 강조해야 할 시기이다. 이제는 포스트모던적 문화에 대응하여 의미 있고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한국의 세계관을 회복할 시간이다. 이제는 변혁과 살림의 조화를 이룰 신학적으로 건전한 관점을 제공함으로써 극단을 넘을 방법을 찾을 때이다. 이 관점은 이원론과 극단, 승리주의와 패배주의, 양극화를 극복하고 종교적인 신념이나 세계관에 근거한 다원화된 사회를 증진시킬 “지주화”(pillarization)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통합적인 비전에 기여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극단을 조율하여 살림에 기여하는 방법이다.

** 본 칼럼은 지난 5월, 총회설립100주년기념 세계개혁교회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신국원 교수님의 논문 “Balancing the Extremes: Calvinism as a Mediatory Socio-Cultural Vision”을 주최측에서 번역하여 저자의 확인 하에 본지 편집부에서 요약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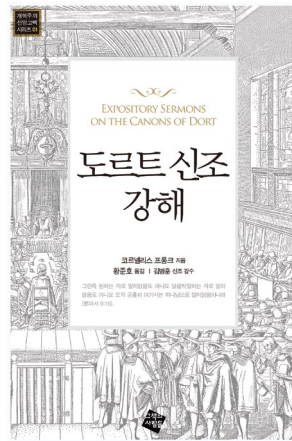


신국원 총신대 신학과 철학교수로 본 단체 실행위원이자 세계관아카데미 소장이다. 저서로는 『변혁과 살림의 대중문화론』, 『신국원의 문화 이야기』, 『포스트모더니즘』, 『니고데모의 안경』 (이상 IVP) 등이 있다.

개혁신주의 서적을 소개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로마서 11장 36절



도르트 신조 강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교리에 대한 위대한 신앙고백—

코르넬리스 프루크 저 | 황준호 역 | 그책의 사람들

세계개혁신주의 컨퍼런스를 통해 역사적, 고백적 개혁신교회의 신앙을 생생히 보여주는 도르트 신조를 다시 살펴본다. 이 책은 도르트 신조가 왜 성경적이며 어떻게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는지 쉽고도 바르게 해설해 준다. 도르트 신조는 성경의 가르침을 바르게 알고 믿으며,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도와주며, 이를 통해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 30여 편의 설교로 이루어진 이 책은 칼빈주의 5대 교리(전적타락 Total depravity, 무조건적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 제한속죄 Limited atonement, 불가항력적 은혜 Irresistible grace, 성도의 건인 Perseverance in the faith)에 대해 명확한 지식을 주면서도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신조의 조항들을 묵화적이고 따뜻하게 부담없이 읽을 수 있게 구성하였다. 칼빈주의는 구원의 길일 뿐 아니라 삶과 세상의 모든 면을 아우르는 세계관이자 인생관이다. 칼빈주의 5대 교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며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의 중심 사상과 근본원리가 여기서 비롯됨을 말한다. 도르트 신조는 논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향론파의 거짓된 가르침을 반박하고 동시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교리가 무엇인지를 선포하기 위한 신앙고백으로, 우리에게 이 불변하고 영광스러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하기 위한 것이다. 칼빈주의의 5대 교리를 해설하기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알도록 하며 지식적인 공부나 아니라 묵상으로 마음에 새길 것을 강조한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해 있는데 모두를 멸망시키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서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시는가?”

아더 핑크의 하나님의 주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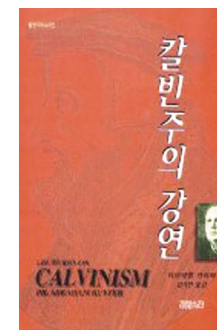
아더 핑크 저 | 임원주 역 | 예루살렘



20세기 전반에 활동한 탁월한 성경 연구가인 아더 W. 핑크는 철저한 칼빈주의자였으며, 전도자요 성경학자였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무엇인가?’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창조와 통치, 구원과 유기 그리고 실행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전방위에 미친다고 강조한다. 예민한 부분 중 하나인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도 명쾌한 답을 제시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따라서 저자가 서문에서 밝히듯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총체적인 내용을 다룬 이 책은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가장 심오한 물음에 대한 탐구서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이 질문의 마지막 답이 여기 있다. 우리가 취해야 할 바른 태도는 경건한 두려움, 절대 복종, 완전한 내어맡김과 복종의 태도다. 하나님의 주권을 바르게 인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참된 자리에 두고, 하나님의 권리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칼빈주의 강연

아브라함 카이퍼 저 | 김기찬 역 | 크리스찬다이제스트



“칼빈주의”란 용어는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책에서는 아브라함 카이퍼의 여섯 강연에서 쓰인, 가장 넓은 의미에서 그것은 광범위한 영향을 끼치는 삶의 체계로서의 칼빈주의를 언급한다. 이교, 이슬람교, 현대주의와 더불어 칼빈주의는 삶의 세 가지 근본 질문에 관하여 하나의 선택을 제시한다.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하는가? 인간과 인간, 인간과 세계는 어떻게 관계하는가? 카이퍼는 삶의 모든 체계를 지배하는 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해석이며, 이 개념은 칼빈주의 안에 있고,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하나님의 직접적 교제라는 칼빈주의의 근본 해석 덕택이라고 주장한다. 이 강연은 1898년 카이퍼가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서 한 것이다. 카이퍼는 삶의 체계 혹은 세계관으로서의 칼빈주의를 주장한 최초의 인물이다. 본서는 세계관으로서 칼빈주의에 관한 고전적인 책으로, 삶의 체계로서 칼빈주의, 그리고 칼빈주의와 종교, 정치, 학문, 미래에 대해 이야기한다.

오경준의 성경탐구

신약에 더 more Ω 있다

오경준 지음



보인다! 들린다! **신약의 행간과 사연에 숨은 뜻**

믿는 자는 심판을 피해 갈 수 있을까?
의심 많은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였나?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 왜 비슷한 표적이 두 번 일어났나?

이제껏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았던 성경의 숨은 뜻!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성경에는 없다》,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 성경에는 있다》의
저자 오경준 목사가 말씀의 광산에서 보물을 캐듯 '신약'의 행간과 사연을 속속들이 파헤쳤다.

오경준 지음 | 믿음의 글들 311 | A5변형 | 280면 | 13,000원

※《구약에 더 있다》도 곧 출간됩니다!

홍성사

T. 333-5161 <http://www.hsbooks.com>

WORLDVIEW COLUMN

주일학교 교사를 위한
기독교세계관 학교

주일학교 교사 멘토링!

주일학교 교사 니고데모 씨, 멘토 신국원에게 묻다!

HOW TO. 주일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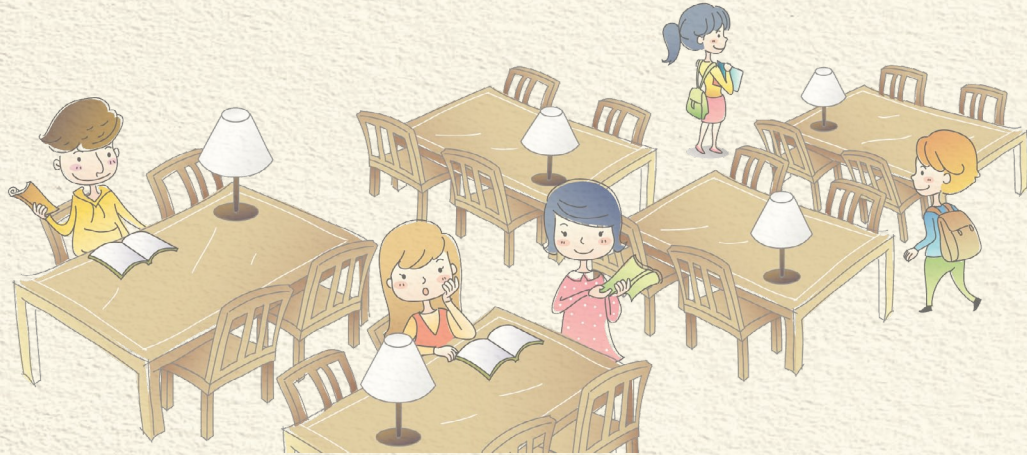
거룩한 읽기, 기독교세계관과 묵상



주일학교 교사 니고데모 씨, 멘토 신국원에게 묻다!

◎ 신국원 (총신대 신학과 교수, 세계관아카데미 소장)

여름성경학교, 수련회 준비로 부쩍 바빠지는 7월,
이번만큼은 꼭 아이들이 성경을 바로 보도록 도와야겠다고 다짐하는 니고데모 씨.
산으로 들로 나가는 만큼 특별한 준비가 필요하겠죠?



Q1. 교수님, 어떻게 읽는 것이 성경을 '바로' 읽는 것일까요?

자연은 하나님의 존재와 숨씨, 권능을 하나도 숨김없이 보여줍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19:1) 봄철 새로 피어난 잎새와 꽃들과 가을의 고운 단풍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듯이 말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대자연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짐작하게 마련입니다.

성경은 누구나 하나님이 계신 것만큼은 분명히 알 수 있어 핑계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불신앙은 무지가 아닌 억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어두워진 인간은 이를 바로 보지 못합니다.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온갖 허망한 생각에 빠지곤 하지요. 성경의 진리는 이를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안목을 고치고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게 합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선교사라 불리는 레슬리 뉴비긴은 성경은 “보아야”(look at) 할 책이 아니라 “통해 보아야”(look through) 할 책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성경을 들여다 보지 말고 양 끝에 줄을 달아 눈에 쓰라고 말하곤 합니다. 안경은 눈의 일부처럼 자연스러워야 한다는 것을 누구나 압니다. 안경에 신경을 쓰면 뭘 제대로 보기 어렵지요. 안경사가 아니라면 안경만 만지고 있을 이유도 없고요. 성경적 세계관도 그렇습니다. 세계관 자체가 관심사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의 진리에 익숙해져서 매사를 말쑥에 비춰 봐야 진짜 그리스도인의 안목을 갖춘 것이지요.

성경에 익숙해져야만 기독교적 안목이 생깁니다.

Q2. '기독교적 안목'이라. 아이들에게 설명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할 수는 없을까요?

기독교 세계관은 삼중 안경

성경의 진리에 따라 세상을 보는 안목을 기독교 세계관이라 부릅니다. 저는 성경이 창조와 타락, 그리고 구속이라는 세가지 중심 주제를 통해서 세상과 역사를 바라보는 특별한 관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세계관은 삶과 세상에 대한 조망이기에 흔히 안경에 비유합니다. 하지만 성경적 세계관에 대한 가장 좋은 비유는 쌍안경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볼록렌즈와 프리즘과 오목렌즈를 가진 쌍안경처럼 창조, 타락, 구속의 세 개의 렌즈를 지닌 특별한 안경 같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쌍안경을 통해서 육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관측할 수 있다는 점도 성경이 영원의 안목을 열어주는 것과 비교할 수 있구요. 쌍안경은 세 렌즈의 초점이 맞아야 제대로 보입니다. 성경의 진리도 창조, 타락, 구속의 내용이 통합적으로 이해되어야 세계와 삶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창조의 진리만 강조되고 타락과 구속이 빠진다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일 수 없습니다. 타락만 강조되면 불교와 같이 세상을 부정하는 관점을 줄 겁니다. 구속만을 강조되면 세상이 왜 창조되었는지는 물론 회복된 세상이 어떨지도 보여주지 못할 것이고요. 초점이 맞추어진 창조-타락-구속의 성경적 세계관을 통해서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천국은 바로 이 삼중의 성경적 진리를 통해서 보는 세상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 세상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Q3. 수련회다 성경학교다 산으로 들로 나갑니다. 그저 나가서 놀기만 하기엔 뭔가 श्यक합니다. 자연을 바라보며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좋을까요?

창조에 대한 지식과 찬양

저는 창조에 대해 가르칠 때 저를 대신해서 한 시간동안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묻곤 합니다. 이상하게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타락이나 구속에 대해서라면 열 시간이라도 할 사람이 있을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창조에 대해서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끝입니다. 진화론과 씨름했던 사람은 할 이야기가 조금은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창조의 진리를 진화론과 싸우는데만 쓰는 것은 옹졸한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옛 성도들은 우리와 많이 달랐습니다. 시편 8, 19, 33, 48, 104편과 같이 창조의 진리를 노래한 찬송이 가득하니까요. 그들은 이 노래들을 예배와 삶 속에서 즐겨 불렀던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참 아름다워라”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같은 찬송을 예배에서조차 잘 부르지 않습니다. 이처럼 요즘 그리스도인들도 창조에 대해 너무도 생각을 않습니다. 자연히 창조의 진리를 통해 삶을 바라보는 일도 약할 수 밖에요.

옛 시인은 펄펄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갈이 흠으시며 우박을 띄 부스르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시 147편) 천지 만물은 늘 한치도 어김없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를 따라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조차도 겨울이 왔으니 당연히 춥고 눈이 오는 줄로 생각하곤 합니다. 일상 생활 속에서 창조의 진리를 묵상하는 습관이 되어있지 않아 그렇습니다.

창조의 진리를 통해 삶을 바라보세요. 창조주의 은총을 노래하게 됩니다.

시작과 완성

창조의 진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실은 완성을 향해 가는 시작에 관한 교훈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창조가 불완전했거나 부족했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창조는 에덴동산에서 새 예루살렘 성(城)으로 가는 역동적인 과정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첫 두 장인 창 1, 2장과 마지막 계 21, 22 장은 놀랄 정도로 흡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요.



수년 전 청계천 복원이 마무리 될 무렵 신문에 옛날 사진과 요즘 사진이 나란히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개울가 초가집 앞에 마차가 지나가는 모습이고 다른 하나엔 고층빌딩 사이로 자동차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두 그림은 분명히 같은 곳을 알 수 있었지요. 뒤로 보이는 산과 앞에 흐르는 개천의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같았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창세기 강들이 계시록에도 있고 금은 보화의 자원도 거기에 있습니다. 생명나무도 있고요. 가장 큰 차이는 에덴은 동산인 반면 새 예루살렘은 도시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는 자연의 모습에서 점차 문화의 형태로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창조는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완성을 향해 나가시는 비전의 첫 장이었던 것이지요.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만들어지고 지금도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중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완성된 세계를 꿈꾸십니다.

세상 만물이 창조주를 찬양

세상 만물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시는 이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만물을 손에 붙잡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졸거나 주무시지 않으시지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개인의 인생에 결코 무관심하신 분이 아님을 깨우치는 설교의 단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실 뿐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고 버려두지 않았다는 뜻이지요. 시편을 쓴 이들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만물을 붙잡으시고 직접 주관하고 계시다는 생생한 의식을 가졌습니다.

이 사실을 안경으로 삼아 세상을 바라보면 오늘날 만연한 자연주의를 넘어서실 수 있습니다. 또 거기서 비롯되는 오류도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대과학은 기계적 세계상을 전제로 많은 발명과 발견을 이룩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문제점은 속속

밝혀지고 있지요. 세계는 우연히 생긴 거대한 원초적 물질 덩어리가 “빅뱅”(big bang)에 의해 폭발해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 후 “맹목적 힘”에 의해 방향 없이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제 인생의 방향과 목적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살다 보면 의미와 이유를 알기 어려운 크고 작은 일을 만나게 되지요. 하지만 큰 계획을 따라 세상을 지으시고 지금도 직접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믿음은 모든 낙관과 비관을 넘어서는 자세를 줍니다. 세상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며 무지막지하지도 않습니다. 세계는 오묘하고 조화롭습니다. 예술적이며 섬세하지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보여줍니다.

Q4. ‘창조’를 이렇게 보니 피부에 와 닿습니다! 창조가 아주 오래 전 이야기만이 아니라 바로 지금도, 오늘의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세계 속에 있는 거네요?

말씀에 순종으로 존재하는 세계

성경은 모든 세계가 그의 말씀으로 지어졌음을 알려줍니다(창 1장, 히 11:3). 만물은 있으라 하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의 뜻하신 대로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그의 말씀이 만물이 존재하는 원리고, 지켜야 할 법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물뿐 아니라 볼 수 없는 시간과 사시 순환의 원리까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것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제도나 물건도 말씀의 원리에 따라 있어야 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옳고 그름을 가릴 창조주의 뜻이 기준입니다. 창조의 진리는 또 실제적 교훈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현실에서 직면한 문제에 대한 답을 거기서 찾으셨지요. 이혼의 문제를 오히려 삼아 시험하러 왔던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좋은 예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하나 되게 하여 부부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입각해서 이혼은 허용될 수 없음을 밝히셨습니다. 지금도 모든 성 도덕, 결혼과 이혼의 문제도 창조질서가 답입니다. 동성애와 같이 논란의 여지가 많은 문제도 그렇습니다. 창창 논쟁중인 배아복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의 진리가 사안을 바라보는 안경이며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하지요. 이를 상식이나 지배적인 이론에 입각하여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경제적인 이득이나 정치적 목적이 기준이 되면 더욱 위험함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태초에 만물을 있게 하신 창조의 말씀이 모든 것의 원리입니다.



신국원 총신대 신학과 철학교수로 본 단체 실행위원이자 세계관아카데미 소장이다. 저서로는 『변혁과 실패의 대중문화론』, 『신국원의 문화 이야기』, 『포스트모더니즘』, 『니고데모의 안경』(이상 NVP) 등이 있다.

거룩한 읽기,

기독교세계관과 묵상

이춘성 (한국라브리공동체 간사)



“대혁명이란 성서를 읽는 운동입니다. 루터는 무엇을 했을까요?

성서를 읽었습니다. 그는 성서를 읽고, 성서를 번역하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책을 썼습니다.

이렇게 하여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책을 읽는 것, 그것이 혁명이었던 것입니다.

반복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p.70)

위의 내용은 일본의 철학자 사사키 아타루가 그의 책 『잘라라, 기도하는 그 손을』에서 종교개혁을 평가한 것입니다. 일반 철학자인 사사키 아타루는 종교개혁이 성경을 읽고, 본래의 의미를 찾는 운동에서 시작되었다고 지적합니다. 이것은 아타루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이미 교회사 학자들이 이에 대해 많은 연구를 했고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은 그가 로마서를 접하고 읽은 과거 시점부터 이미 시작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철학자 사사키 아타루는 이에서 더 나아가 책을 바르게 읽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대단한 일인가에 집중합니다. 성경에 대한 바른 읽기는 유럽이 수백 년간 지켜온 견고한 중세의 세계관을 단번에 무너뜨리는 대변혁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이러한 읽기혁명은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미 주장하고 증명해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창 1:3), 창세기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 되었음을 기록합니다. 또한 요한복음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요 1: 1~14)는 하나님과 말씀의 관계성을 인간에게 알려 줍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말씀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씀의 본질이 무엇이나에 대해서는 신학적 이견들이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확실한 사실은 성경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바르게 보는 참된 세계관을 얻습니다.

우리는 이 참된 세계관을 결코 거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세상은 우리를 혁명가처럼 받아들이고 박해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글을 통해 성경읽기의 한 방법론인 묵상에 대해 논하고, 바른 성경읽기와 묵상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세계관 교육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려 합니다.

바른 성경읽기가 묵상이다

묵상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성경적인 묵상은 바른 성경읽기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묵상은 시편 1편 2절과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사용하는 ‘묵상’이라는 단어에 기인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묵상’이란 “낮은 소리로 읽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시편 71편 24절, 143편 5절에서도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이 단어는 사자의 울음소리와 같이 큰 소리나 슬픔에 흐느끼는 작은 소리를 나타내는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서로 상반된 상황에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같은 소리를 반복해서 내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통해 볼 때, 묵상이란 단어는 성경을 읽는 것이며, 동시에 반복해서 계속 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저는 묵상이 기독교가 오래 전부터 실천해 온 바른 성경읽기 방법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1973년에 제임스 패커는 그의 책 『하나님을 아는 지식』(Knowing God) 첫 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묵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모름으로 해서 통탄할 만큼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른 성경묵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묵상이란 하나님의 사역과 도(way) 그리고 목적과 약속들에 대해서 자신이 아는 여러 가지 것을 상기하고 (calling to mind), 숙고하고(thinking over), 깊이 생

각해 보고(dwelling on), 적용하는(applying to one-self) 활동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에 의해, 하나님과 교통하는 수단으로서, 의식적으로 수행하는 거룩한 사고 활동(an activity of holy thought)이다.”(p.23) 여기서 우리는 패커가 묵상을 크게 두 가지 활동으로 나누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고의 활동이고, 둘째는 행함의 활동입니다. 즉, 묵상이란 단지 성경을 읽고 정보를 취하는 활동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인간과 소통하고자 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참 뜻을 발견하는 작업이며,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저는 전자는 바른 읽기이며 후자는 바른 읽기의 당연한 결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수 1:18).

바른 성경읽기와 묵상이란?

패커가 하나님을 아는 길로서의 성경묵상을 이야기한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묵상에 대해서 이전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묵상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70년대 중반 성서유니온이 시작되면서부터입니다. 그 후로 많은 단체들이 성경묵상을 보급하기 위해 관련 프로그램과 책자들을 만들었고, 교회에서는 성도들의 경건생활을 위해 이를 적극적으로 장려해 왔습니다.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바른 성경읽기에 고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문제점들만 수정한다면 한국 기독교인들이 바른 성경읽기에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저는 한국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성경읽기와 묵상 습관에서 가장 미숙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중 두 가지만 언급하려고 합니다.(하지만 이러한 진단은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에 이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으리라 봅니다.)

첫 번째, 한국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성경읽기와 묵상은 사고의 과정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거나, 이를 무시하는 경향 때문입니다. 사고의 과정이

무시된 성경읽기가 얼마나 비상식적인 결과를 초래하며, 성경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지는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 전라남도에서 한 목회자 부부가 세 자녀를 죽이고 시신을 방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구약의 잠언 23장 13-14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의 구절을 그대로 따라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아버지인 박씨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사십에서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라는 성경 구절에 근거하여 아이들을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이는 상식적인 사고(thought)의 과정이 없이 신비적인 방법으로만 성경을 읽고 해석한 참혹한 결과였습니다.

이렇게 정당한 사고의 과정을 무시하는 성경읽기와 묵상이 자연스럽게 한국 기독교인들의 삶에 자리잡게 된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저는 한국인들의 전통 종교인 무교(무속종교)의 세계관을 꼽고 싶습니다. 무교의 사면인 무당은 이승과 저승을 연결하는 통로의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춤과 노래를 통해 무아의 지경에 이르러 점신을 통해 다른 인격에게 조종당합니다. 이때 무당의 사고 과정과 이성의 활동은 중단되고 알 수 없는 초월적 힘을 경험함으로 무당은 저승으로부터의 이승을 향한 뜻을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이러한 무교적 의사소통 방법은 인간의 사고 활동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신과 소통하는 방법은 한국인의 정신세계를 통해 지금도 우리에게 유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 사고의 과정보다는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감정이나 머릿속에 지나가는 심상과 단어, 문장으로 성경을 깨달았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무교가 성경읽기와 묵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는 무교가 추구하는 근본 세계관 때문입니다. 정수복은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에서 무교는 저승보다 이승이 더 좋은 세상이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무교는 현세적 물질주의를 강화시켜서, 영적인 것보다는 개인이나 단체의 욕망의 실현이 중요하며,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켜 현세의 행복에 대한 추구를 강화한다고 지적합니다(p.310). 이것은 무교가 직관적인 종교적 체험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잘 보여줍니다. 무교는 초월을 빙자하여 인간의 현세적 욕망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당한 사고 활동이 없는 직관적이고 체험적인 성경읽기와 묵상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국의 기독교가 현세 중심적인 기복 신앙이라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현 기독교가 윤리적으로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향했던 목적이 현세 중심적이며, 인간 중심적이었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자신의 욕망을 포장하나, 결국 깊은 곳에 숨겨진 악한 의도가 그 본색을 드러낸 것이 아닐까요.

타락한 인간들의 추악한 욕망은 자신에게 유익한 것은 취하고 불리한 것은 무시하거나 왜곡시켜 스스로를 선의의 사람으로 가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런 인간들은 진리에 눈을 감아버리고도 일말의 죄책감마저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의 깊은 사고 활동은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진리에 대한 욕구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진리를 찾고자 할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사고 활동을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요 14:26) 신학자인 제임스 패커는 이렇게 말합니다. “묵상은 의식적으로 수행하는 거룩한 사고 활동이다.”

둘째로 저는 적용 중심적이며 실용적인 성경읽기와 묵상 방법들이 바른 성경읽기와 묵상을 방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급변하는 현대 사회와 복잡한 인간관계는 우리의 정서를 불안하게 하는 주된 원인입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저는 비교적 변화에 둔감한 시

골에서 살고 있습니다. 시골 생활이란 새로운 만남이 많지 않고, 도시와 떨어져 있어 사회에 대해서도 다소 무관심하게 만듭니다. 최근까지 TV도 없었으니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골 생활에도 인간관계나 계절의 변화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하물며 복잡한 도시에서 생활하는 현대인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을까요?

이러한 사회 속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왜?”(Why?)나 “무엇?”(What?)라는 질문보다는 실용적인 “어떻게?”(How?)라는 질문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관심을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리하고 따분한 해석의 과정은 건너뛰고, 즉각적인 적용 중심의 성경읽기와 묵상이 성도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각종 성경읽기 잡지들은 독자들이 해석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고, 너무나도 친절하게 답을 제공해주며 심지어 무엇을 적용해야 하는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의 유치원 수준의 교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성경을 실용서로 전락시키는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왜”나 “무엇”을 질문하는 것은 성경의 본래의 뜻을 찾는 과정이며, 해석의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보통 이 과정을 전문가들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우리의 현실과는 별로 연관성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코 우리의 현실에 무관심하지 않으며, 해석의 과정도 전문가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결혼, 자녀교육, 인간관계, 가족생활, 직장생활 등 다양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누구와 결혼해야 할지, 어느 직장에 가야 할지, 부모님 생일 선물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말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자유인으로서 이러한 삶의 여러 문제들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줍니다. 이를 기독교세계관이라고도 하지요. 성경은 이러한 삶의 근본 가치를 형성하여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며, 이를 통해 성도가 취해야 할 바른 세계관이 무엇인지 찾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과정에 성도가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면, 성경의 지식은 성도 개인에게 인격적인 지식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읽기와 묵상을 할 때, 공장 적용으로 넘어가거나 교재에만 의존하지 않고 해석의 작업에 참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주시고 자하는 바른 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야 비로소 “어떻게”의 문제를 자유인인 우리가 거리낌 없이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17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

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사도바울은 성경의 목적이 우리를 온전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온전한 자’의 의미를 전후 문맥을 통해 확인해 보면, 이미 완성된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세대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려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들이 실제 삶과 적용이 완벽한 자들이어서 온전한 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삶이 온전한 방향을 향하고 있기에 온전한 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디모데후서를 받은 디모데와 교회처럼 당장 나의 필요에 따라 성경을 읽기보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해석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성경읽기와 묵상이 회복해야 할 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논한 내용을 볼 때, 현대 한국 기독교인들이 회복해야 할 바른 성경읽기와 묵상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먼저 무속적 영향에서 벗어나 깊이 있는 사고의 과정을 중요시 하는 성경읽기와 묵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고 과정의 회복은 자연스럽게 현세 지향적인 성경읽기와 묵상에서 벗어나 내세와 현세를 통합하는 –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엡 1: 10)– 진정한 초월적 신앙의 회복으로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둘째로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해석의 과정에 참여 하도록 격려하고, 해석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성경연구 방법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이춘성 전북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졸업하고 한국 및 영국의 라브리공동체에서 수학하였다.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M.Div.)에서 신학을 공부하였으며 분당소망교회, 대애교회 청년부 전담사역을 하였으며 현재 한국라브리 간사로 섬기고 있다.

2013년 신입생
현재모집중

Love to learn,
Love to think,
Love to God!

서울국제크리스천아카데미(SICA)는
기독교적 고전교육(Classical and Christ-centered
Education)을 지향하는 국제학교입니다.

2013학년도 신입생 수시 및 정시 입학

Senior Kindergarten(유치원생)/Grammar Level(초등학생 1-4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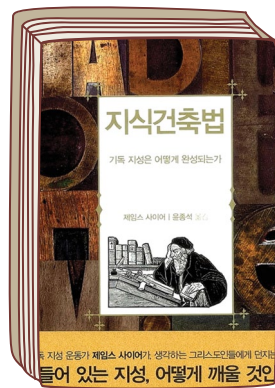


주소: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363번지 ※신분당선 양재시민의숲역 3번 출구에서 도보로 10분



서울국제크리스천아카데미
Seoul International Christian Academy

문의 | 02,557,7710
sicacademy@dcty.co.kr
www.sicacademy.org



제임스 사이어 저 | 윤종석 역 | IVP

지식건축법: 기독지성은 어떻게 완성되는가?

◎ 유재봉 (성균관대 교수, 기독교학문연구회 부학회장)

그리스도인에게 도대체 지성의 위치는 무엇이며, 기독 지성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등에 관한 문제는 오늘날에 와서 큰 인기는 없지만 여전히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주제이다. 기독 지성에 관해서는 마크 놀, 오스 기니스, 데이비드 길, 브라이언 월시, 리처드 미들턴, 조시 마스텐 등에 의해서 간헐적으로 소개되어 왔다.

이 책은 한국의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 토대를 제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제임스 사이어(James W. Sire)의 저서를 번역한 것이다. 이 글은 기존의 엄격한 지적인 논의로 점철된 이전의 글과는 달리, 다소 개인적인 고백이 담긴 자서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말하자면, 그 자신이 어떻게 기독 지성인이 되었으며, 진정한 ‘기독 지성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기독 지성인의 모델들을 통해 잔잔한 내러티브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다.

사고를 사랑하는 사람, 지성인

지성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대학 이상의 교육받은 사람을 일컫기도 하고, 박학다식한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고, 비판적 지성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기도 한다. 사이어에 따르면, “지성인이란 사고를 사랑하는 사람, 즉 헌신적으로 사고를 다듬고, 사고를 개발하고, 사고를 비판하고, 사고를 뒤집고, 사고의 함축된 의미를 보고, 사고를 쌓아올리고, 사고를 배열하고, 새 사고가 튀어나와 낡은 사고의 자리배열이 달라지는 듯할 때 잠잠히 앉아있고, 사고를 가지고 놀고, 관련 단어로 말놀음 하고, 사고를 웃고, 사고의 충동을 지켜보고, 조각들을 주워 모으고, 다시 시작하고, 사고를 판단하고, 사고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고, 사고를 바꾸고, 사고를 다른 사고의 체계들의 대응물과 접촉시키고, 사고를 초대하여 함께 먹고 춤추되 또한 일상생활에 소용이 되도록 사고를 맞추는 사람이다.”(pp.33-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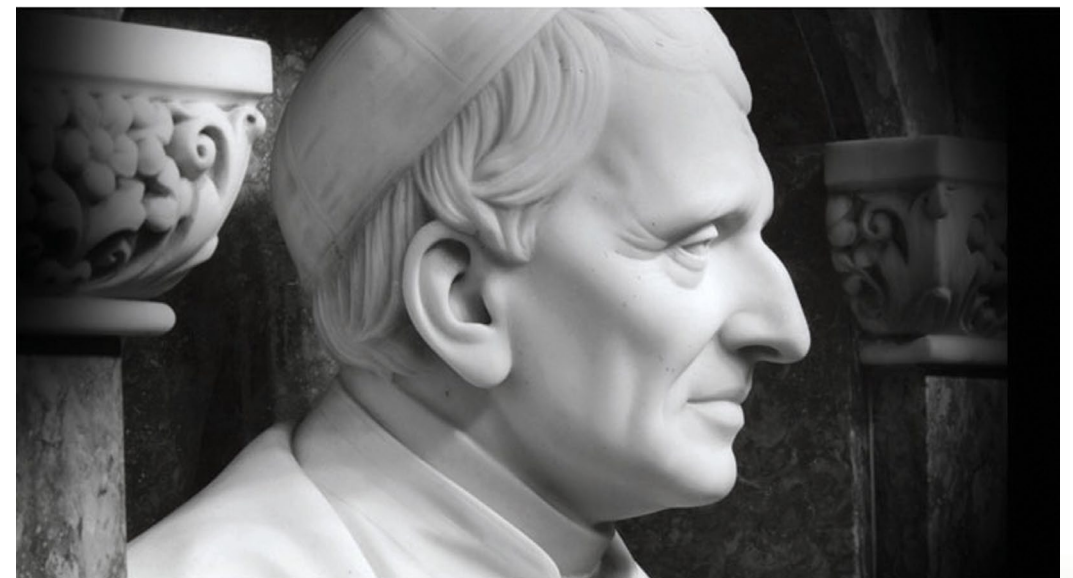
그러면 기독 지성인은 이것으로 충분한가? 기독 지성인도 지성인으로서 일반 지성인의 이러한 특징들을 당연히 공유한다. 기독 지성인이 일반 지성인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지성적 활동을 하는 목적이 다르다는 데에 있다. 그 목적은 다름 아닌 지성 활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데에 있다는 것이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전 10:31)는 바울의 말씀은 기독 지성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기독 지성인의 모델, 뉴먼

사이어가 보기에, 이러한 기독 지성인의 대표적인 모델은 뉴먼(John Henry Newman)이다. 뉴먼은 처음에는 복음주의자로 교육받았으며, 옥스퍼드 대학에 있는 동안 1824년 국교회(Church of England)의 목사가 되어 헌신했다. 그는 이른바 ‘옥스퍼드 운동’의 핵심인물로 활동하다가 1845년 가톨릭으로 개종하여, 1879년에 추기경이 되었다.

기독 지성인의 모델로서 뉴먼의 모습은 『대학의 이념』(The Idea of a University)에 잘 드러나 있다. 이 책은 1852년부터 아일랜드에 별도의 가톨릭 대학을 설립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강연한 것을 모은 것으로 그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지식 그 자체의 가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신학과 다른 학문과의 관계에 대해 말하고 있다. 전자가 자유교육(liberal education)의 이념, 즉 지성의 함양을 강조한다면, 후자는 지성의 함양에 있어서 신학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말하자면, 『대학의 이념』에 나타난 핵심 아이디어는 “모든 지식은 하나의 총체를 이룬다.”(All knowledge forms one whole or circle)와 “종교적 진리는 총체적 지식의 일부이면서 조건이다.”(Religious truth is not only a portion, but a condition of general knowledge)라는 두 명제로 표현될 수 있다. 뉴먼은 그리스도인의 지성을 “지성의 완성”, “지고한 지성”, “지성의 철학적 습성” 등으로 불렀다. “지성의 완성





은 역사에 대한 지식으로 보면 예언에 가깝고, 인간 본성에 대한 지식으로 보면 심령의 감찰에 가깝고, 소소함과 편견에서 해방되었으므로 초자연적 순결에 가깝고, 지성을 깜짝 놀라게 할 것이 없으므로 믿음의 안식에 가깝다. 지성의 완성은 천상의 묵상에 가까운 멧과 조화가 있으며, 만물의 영원한 질서 및 천체의 음악과 아주 친밀하다.”(The Idea of a University, p.101)

기독교지성인의 진리 접근법

사이어가 뉴먼을 기독교 지성인의 모델로 본 것은, 그의 ‘진리를 추구하는 열정’과 그리스도를 닮으려는 ‘거룩함을 향한 열정’ 사이에서 균형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진정한 기독교 지성인의 원형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시며, 로고스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거룩 그 자체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게 회복되지 않은 인간이 예수님처럼 진리를 말하고 거룩할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의 태도는 본받을

필요가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 우리의 거룩함은 성령을 쫓는 삶을 통해 가능하다. 성령을 쫓는 삶은 선한 것—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할 만하며, 덕과 기쁨이 되는 것(빌 4:8)—을 늘 염두에 두고 사모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을 죽이고 죄의 행실을 버리는 것이다.

거룩함을 향한 열정은 진리를 알려는 열정뿐 아니라 진리를 향하려는 열정을 낳는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며, 전인, 즉 앎과 행함, 믿음과 순종, 신앙과 실천, 이론과 실제 사이의 통합이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흔히 오해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성은 단순히 두뇌나 인간의 지적 측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의미의 지성은 위험하고, 교만하게 만든다(고전 8:1). 올바른 지성은 감정, 태도, 성향, 의지, 도덕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지성이야말로 온전한 진리에 접근할 수 있다.

진정한 ‘기독교 지성인’의 삶이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인 모두가 학벌이 높거나 해박한 지식을 가진 지성인이 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일과 달란트의 분량대로 살아가면 된다. 그러나 인간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는 데 있다면, 우리는 영화롭게 해야 할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우리에게 지성인 삶이 정작 필요한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이다.

이 점에서 보면 헬라인처럼 지식의 많음을 자랑하는 것도, 많은 복음주의자들처럼 신앙만 있으면 된다는 반지성주의 태도도 문제가 있다. 전자에 대해서는 하

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지식과 이론을 무너뜨리고, 오히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후 10:4-5). 후자와 관련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지성인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진리 안에서 삶을 영위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요청된다.

이렇듯, 우리는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행하는 삶의 습관을 통해 우리의 지성을 확장해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 확장된 지성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화롭게 하는 일에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과연 누가 기독교 지성인인가

이 책은 자신이 기독교 지성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고 지성인이지만 기독교 지성인의 삶에 무관심하거나 기독교 지성인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의미 있는 책이다. 이 책은 기독교 지성인에게는 그 이름에 부합하게 살고 있는지를 성찰하게 해주며, 기독교와 지성을 분리하거나 지성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기독교 지성이 왜 중요하며,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다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다소 까다롭고 논의가 요구되는 뉴먼에 대한 이해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 책은 무난하고 비교적 잘 번역되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며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려고 애쓰는 사람이나, 기독교 지성을 함양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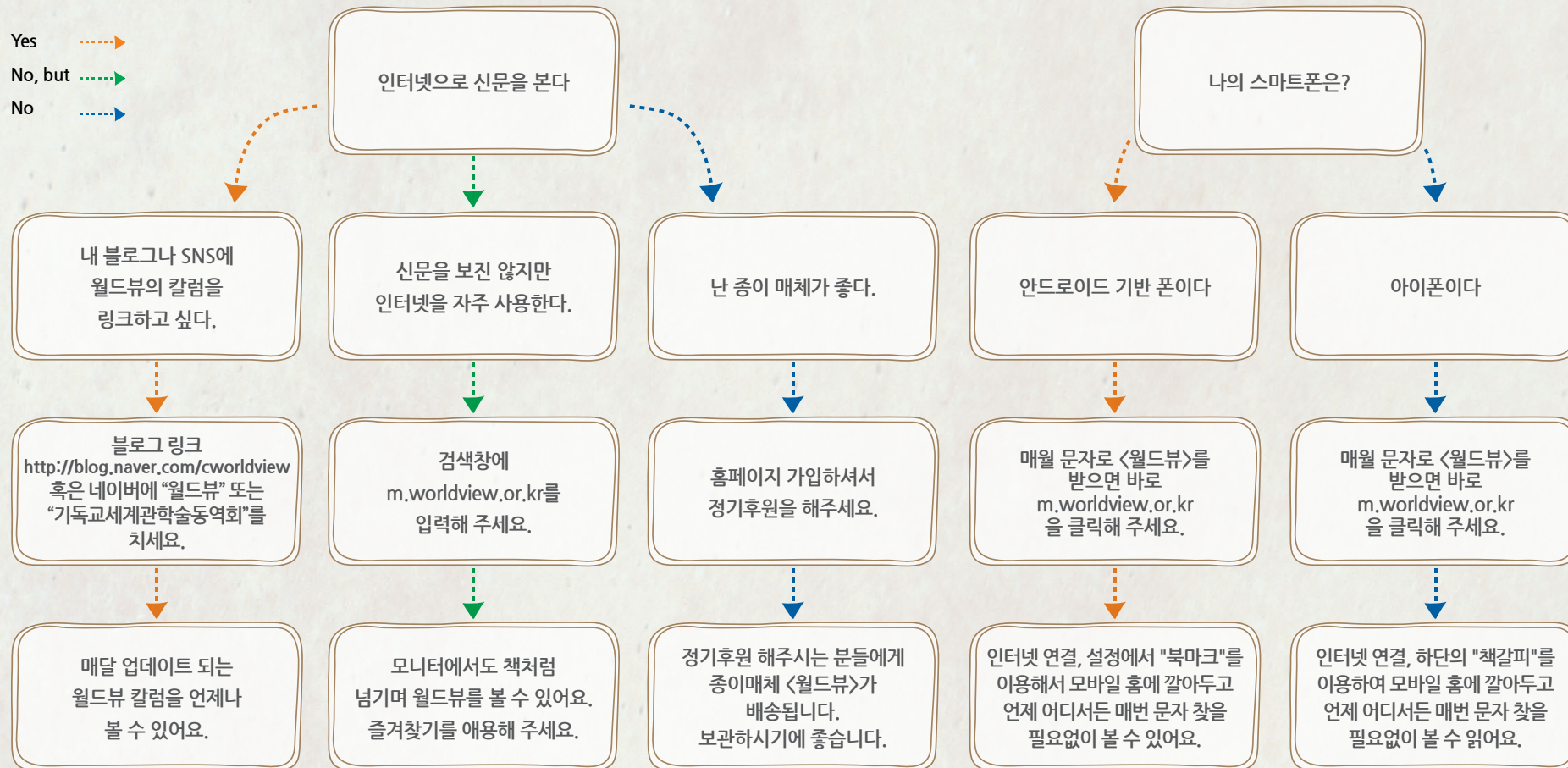


유재봉 영국 런던대학교(Institute of Education)에서 교육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겸 교육연구소장으로 있으며, 기독교학문연구회 부회장으로 섬기고 있다.

월드뷰를 더욱 스마트하게 애용하는 법!

당신에게 맞는 월드뷰 사용법!

매번 문자를 열어 월드뷰를 볼 필요가 없어요!



이 모든 혜택은 홈페이지에 정확히 모바일 번호를 기입하신 분들에게만 해당합니다.
홈페이지(온라인)회원 가입시 <월드뷰>를 메일로, 매월 마지막 날엔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월드뷰>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꾸준히 제작되어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후원하여 주십시오.

※ 핸드폰 모바일홈에 깔아두면 자동으로 매달 업데이트 됩니다.

월드뷰를 더욱 스마트하게 애용하는 법!

1. 스마트폰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2. 공동체와 함께 읽기

- 1) 카카오톡, 라인, 미투데이 등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공유가능
※월드뷰 문자를 널리널리 나눠주세요. 함께, 더불어 갑시다!
- 2) 서평도서 탐독하기 :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소개하는 탐독 가이드. 1년이면 최소 12권 탐독!
※서평과 함께 책을 읽음으로 바른 믿음의 안목을 제시합니다.

3. 교사들을 위한, 교사에 의한, 교사의 기독교세계관학교

- 1) 주일학교 멘토링 : 기독교세계관이 쉽다! 명쾌하다!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기독교세계관 주일학교 교사 멘토링!
※강의가 필요하시다구요? 기독교세계관과 관련된 최고의 강좌를 홈페이지에서 만나세요.
- 2) 세상을 바꾸는 주일학교교사 필독서 : 주일학교 교사의 삶과 역량을 키우는 힘!
※공동체와 함께 나눠요. 교사가 교사에게 권합니다.
- 3) HOW.TO. 주일학교 : 현장에서 들리는 생생한 소리, 지금의 문화 직시하기
※지금의 문화, 현장의 온도를 직접 체험하고 문제와 대안을 제시합니다.

세상속의 그리스도인,
당신의 바른 관점을 위해
"월드뷰의 세상바로보기"가
함께합니다.

다음 신규회원 모임은 9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2013년 5월 30일 마감)

회원후원

2천5백 김민지, 박진호, 3천 구재형, 김성권, 조성진, 3천5백 가월현, 김경현, 김경희, 김경휘, 김병재, 김희원, 남지민, 노주하, 생명의강, 영음사, 정세열, 정필규, 진성자, 최원길, 최희정, 하태실, 황보난이, 5천 고은하, 구성덕, 구재환, 권명중, 권지연, 김경희, 김기웅, 김기현, 김대용, 김미정, 김병국, 김봉오, 김상욱, 김성민, 김성은, 김성찬, 김성택, 김영윤, 김정명, 김정심, 김정원, 김정준, 김제우, 김 준, 김철수, 김태윤, 김항아, 김해창, 박광재, 박승룡, 박천규, 배기선, 배도환, 범경철, 손세용, 손영경, 손영일, 송동민, 송시섭, 신기혁, 신찬웅, 심정하, 안현상, 양영태, 우수민, 유은자, 유충열, 윤경숙, 윤종선, 이경미, 이근배, 이길수, 이노윤, 이덕재, 이명진, 이민희, 이원배, 이윤희, 이은미, 이인수, 이항숙, 임선제, 임춘택, 임형준, 장한일, 전정진, 전종화, 전충국, 정수빈, 조은아, 조인진, 조혜경, 주경식, 지경순, 최광수, 최동희, 최영태, 한배선, 허재일, 홍승기, 6천 김찬호, 7천5백 고상섭, 김영숙, 김효태, 민수진, 방선기, 백은미, 영암교회, 유명성, 이상훈, 이은순, 이주희, 전영식, 1만 강봉남, 강은정, 강호영, 강효식, 고은님, 고현경, 구준희, 권경호, 권민규, 권순범, 김경숙, 김경식, 김경희, 김고운, 김광순, 김규욱, 김남진, 김동우, 김막미, 김병호, 김보경, 김성경, 김성민, 김성상, 김성인, 김세령, 김세중, 김수홍, 김영남, 김요한, 김용석, 김우신, 김원호, 김윤권, 김은덕, 김은혜, 김정호, 김중국, 김중훈, 김진아, 김창현, 김현경, 김형길, 김형수, 김홍식, 나동훈, 남서희, 류의근, 마민호, 박강국, 박광원, 박기연, 박능안, 박두한, 박성인, 박영주, 박종원, 박준모, 박준영, 박진규, 박창규, 박창우, 박해일, 박헌호, 박현경, 박희주, 배지연, 백경은, 빛과소금교회, 서유미, 서화진, 성광원, 소종화, 손현탁, 송미정, 송종철, 송철호, 신상형, 신성자, 신현주, 신형균, 신희기, 신희영, 안 석, 안영혁, 양병국, 양병모, 양혜원, 오지순, 원호영, 유건호, 유경상, 유동준, 유영준, 유지황, 유창은, 유해무, 유화원, 유동수, 윤상현, 윤영휘, 윤찬석, 이경숙, 이계심, 이관후, 이권철, 이규현, 이길형, 이대규, 이명동, 이명복, 이명숙, 이명현, 이문원, 이상무, 이상수, 이상수, 이승엽, 이시영, 이신영, 이연규, 이연철, 이영민, 이영홍, 이윤재, 이은주, 이정기, 이정길, 이정숙, 이종국, 이준성, 이지연, 이진영, 이화성, 이해리, 이호선, 이환일, 임동진, 임 영, 임일택, 임지연, 장승재, 장유진, 장인숙, 장태준, 전명희, 전성구, 정경식, 정동섭, 정성록, 정용수, 정은경, 정은희, 정정숙, 정혜영, 제양규, 조백형, 조성경, 조승희, 조용현, 조혜신, 차봉준, 차정규, 천성빈, 최상열, 최성두, 최세진, 최윤영, 최진우, 최진호, 최한빈, 최호영, 태영숙, 하진호, 한인관, 한정호, 한진영, 한혜실, 하찬영, 허 현, 현승건, 홍선호, 홍정석, 홍철의, 황규영, 황세환, 황태연, 황혜정, 1만5천 김선화, 김효순, 정상섭, 최동원, 2만 강대훈, 강용란, 김경원, 김세광, 김용식, 김민숙, 김정호, 노용환, 문석윤, 박영혜, 배성민, 배은경, 변우진, 손형아, 오한나, 우시정, 유상원, 이 건, 이명희, 이현정, 이현정, 전광학, 정동섭, 조창근, 2만 김원평, 3만 김동원, 김방룡, 김상범, 김지원, 문준호, 박상진, 박신현, 서성록, 양성만, 오의석, 우병훈, 이근호, 이대희, 이은실, 임희옥, 장수영, 조우성, 최용준, 추태화, 한화진, 황정진, 3만5천 장옥경, 4만 이종철, 5만 김민철, 김성락, 김시호, 서진희, 송인규, 신국원, 윤석찬, 정은애, 정희영, 조성대, 채기현, 최현일, 한윤식, 현은자, 10만 김미영, 김승태, 김의원, 박상은, 손봉호, 윤완철, 전광식, 최태연, 12만 강상우, 김미경, 최성순, 20만 차영실, 30만 김승욱

기관후원

5만 개봉교회, 다운공동체교회, 대구서교회, 새언약교회, 성덕중앙교회, 중앙대학안성교회, 10만 금성교회, 남서울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명성교회, 부천참빛교회, 산정현교회, 상록회계법인, 성덕교회, 신석교회, 언약교회, 열린교회, 예심교회, 자운교회, 주님의은혜교회, 20만 서울영동교회, 수영로교회, 25만 한남대학교회, 30만 100주년기념교회, 70만 사랑의교회, 100만 새로운교회, 엘비전, 110만 새로운교회

※회원 여러분의 귀한 후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재정내역은 분기별 홈페이지(worldview.or.kr)를 통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월드뷰』가 여러분 삶 속에 계속 할 수 있도록 함께 후원하실 분들을 기다립니다.

후원계좌: 국민은행 602-01-0667-971 (예금주: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사단법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2013년 임원 및 조직

이사회

이사장	손봉호(고신대 석좌교수)
부이사장	김의원(백석대 부총장), 양인평(법무법인(유)로고스 고문)
이사	김승욱(중앙대 교수), 박상은(생병원 의료원장), 원동연(한국종합과학연구원), 전광식(고신대 교수), 조성표(경북대 교수), 김성수(고신대 총장), 양승훈(VIEW원장), 오경현(사랑의 교회), 조민제(국민일보 회장), 조정민(CGN-TV 前사장), 이만용(삼성전자 사장), 이강인(엘비전 대표), 정희영(총신대 교수)
감사	김원수(주)이리오스 대표, 김승태(에영커뮤니케이션 대표)

실행위원회

실행위원장	조성표(경북대 교수)
부실행위원장	최현일(호산의과학생명연구원장)
실행위원	최태연(백석대 교수), 김미영(주)한국소토 대표, 김승태(에영커뮤니케이션 대표), 김승욱(중앙대 교수), 김원수(주)이리오스 대표, 김태환(영지대 교수), 김혜정(도서출판 CUP), 신국원(총신대 교수), 이진창(성균관대 교수), 유경상(CTC 대표), 장수영(포스텍 교수), 정희영(총신대 교수), 최용준(한동대 교수)

연구본부

학회장	장수영 (포스텍 교수)
국제협력 부회장	손병덕 (총신대 교수)
학술 부회장	김태환 (영지대 교수)
대외협력 부회장	박문식 (한남대 교수)
연구부회장	유재봉 (성균관대 교수)
감사	김홍섭 (인천시립대 교수)
감사	최현일 (호산의과학생명연구원장)
총무	문준호 (KACS 기획실장)
세계관연구소장	김종락 (경북대 교수)

교육본부

교육본부장	최태연 (백석대 교수)
세계관아카데미소장	신국원 (총신대 교수)
세계관아카데미부소장	이승구 (합신대 교수)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원장	조정민 (CGN-TV 前사장)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운영위원	장유진 (미코필름 대표)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운영위원	유지은 (前PD)

세계관운동본부

운동본부장	조성표 (경북대 교수)
대외협력위원장	김승태 (에영커뮤니케이션 대표)
조직관리위원장	김원수 ((주)이리오스 대표)
중국지역위원장	정수균 (선교사)
대학청년위원장	최용준 (한동대 교수)
언론위원장	강진구 (고신대 교수)

독립채산

세상의 지혜를 담는 컵	청소년, 청년 기독교세계관 교육센터
도서출판 CUP	CTC
대표 김혜정	대표 유경상
마케팅실장 윤여근	팀장 한부익, 안성희
기독교세계관 전문월간지	기독교세계관 문학석사, 디플로마 과정 운영
월드뷰 (주)세상바로보기	VIEW 벤쿠버 세계관대학원
대표주관 손봉호	원장 양승훈
발행인 김승욱	이사 조영택, 박신일, 김명준, 김주영

사무국 본부

본부장 최현일(호산의료재단)

대표간사 신희영
간 사 홍정석, 김고운

지원팀
* 회계지원 : 상록회계법인
* 법무지원 : 법무법인(유)로고스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는
기독교적 학문연구와 기독교세계관 운동에 뜻이 있으신 분들의
동참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삶 속에 걸림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청년에게 바른 안목을
제시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민과 삶 속의
수많은 생각에 건강한 문화로 함께 풀어가길 원합니다.

<월드뷰> 한 권이 당신에게 가기까지 3천 5백원

월드뷰 한권을 만드는 데에 3천 5백원,
커피 한잔의 값으로 한달의 풍요로움을 맛보세요.

앞으로도 월드뷰를 계속해서 출판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분들을 만나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 삶 속에 동행할 수 있도록

월드뷰는 여러분의 후원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후원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에 정회원으로 가입, CMS로 통장에서 이체신청!
2. 온라인 회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CMS 이체신청** 혹은 은행에 직접방문, 아래계좌로 **자동이체**를 신청!
3. 아니면 **사무국으로 전화**주세요. 바로 신청해드립니다!
4. 홈페이지에서 **카드 및 휴대폰 소액결제**도 가능합니다!

가입시 혜택

- | | |
|----------------------------|--------------------------------|
| 1. 정기후원회원 : 매월 1만원 이상 | 5. 기부금영수증 발급(지정기부금으로 공제한도가 높음) |
| 2. <신앙과 학문> 정기구독(연4회 발행), | 6. 홈페이지 각종 논문 및 칼럼 다운로드 가능 |
| 3. 학술등재지 <신앙과 학문>투고자격 | 7. 홈페이지 50여편의 동영상 강좌 청취 가능 |
| 4. 월간지<월드뷰> 정기구독(연12회 발행), | |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전화문의 사무국 대표전화 02) 754-8004

이 메 일 info@worldview.or.kr

후원계좌 국민 602-01-0667-971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 CMS신청은 사무국으로 문의바랍니다.

WORLDVIEW NEWS

<신앙과 학문> 18권 3호 투고접수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신앙과 학문>은 상시투고를 받습니다. 학문에 관심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학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권 3호 발행일 9월 30일

18권 4호 발행일 12월 31일

■ 문의 02-3272-4967(학회)

■ 편집위원장 메일 faith.scholarship@gmail.com

<월드뷰> 후기 모집

<월드뷰>는 독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후기를 보내주신 분들께는 사무국에서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후기 제출은 아래의 이메일로 본인의 이름과 연락처, 주소와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 대표메일 info@worldview.or.kr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발렌티어 모집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를 역동적으로 이끌어갈 발렌티어를 모집합니다.

- 분야 번역(독체), 사진, 만화 또는 다양한 아이디어로 도움 주실 분들
- 사무국 대표메일 info@worldview.or.kr
- 문의 02-754-8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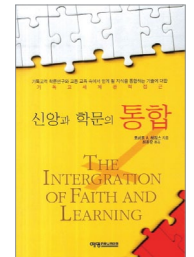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회 실시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2013년 제3차 이사회를 실시합니다.

- 대상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 및 실행위 임원
- 일시 2013년 7월 17일(수) 정오
- 장소 엘타워 데이지홀(서초구 강남대로, 양재동 소재)

[회원동정]

최용준 교수님의 번역서 <신앙과 학문의 통합>



- 로버트 A. 해리스 지
- 최용준 역
- 예영커뮤니케이션

기독교적 학문연구와 고등교육 속에서 얻게 될 지식들을 통합하는 기술에 기독교세계관적으로 접근한 로버트 A. 해리스의 저술<The Integration of Faith and Learning : a worldview approach>를 본지 실행위원인 최용준 교수님께서 번역하였습니다.

[교장선생님 모집 공고]

방글라데시 국제학교를 섬기실 교장선생님을 모집합니다.

방글라데시 에벤에셀 국제학교는 학생이 200여명, 교사가 35명의 학교로 귀한 사역을 함께 동역하실 교장선생님을 모십니다. 에벤에셀 국제학교는 현재 한인교회의 건물을 사용하고 있고 내년 9월에는 교사완공 예정으로 별도의 주거 및 급여가 제공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사무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02-754-8004(동역회 사무국), info@worldview.or.kr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CMCA)는 설문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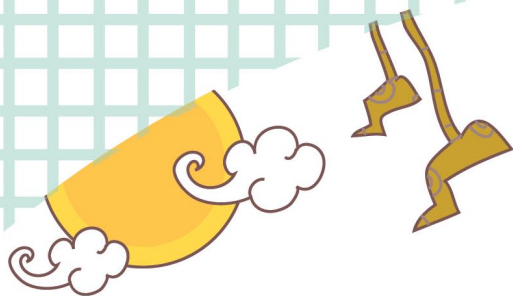
대형서점과 명동 등 사람이 많이 붐비는 곳에서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혹은 CMCA를 사칭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사무국에서 직접 연락하여 강력하게 경고조치를 했음에도 CMCA를 사칭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에서는 설문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를 목격하시거나 경험하신 분은 사무국으로 직접 연락해 주십시오.
(사무국 02-754-8004)





육팔은 사십칠 (출처: 인명진 목사)

갑돌이가 육팔이 사십칠 ($6 \times 8 = 47$)이라고 우겼다.
틀린 것을 보고 못 참는 을식이는 갑돌이를 찾아가서
“어떻게 육팔이 사십칠이나, 사십팔 (48)이지” 하고 고쳐주었다.
그러나 갑돌이는 막무가내였다.
끝까지 육팔은 사십칠이라고 고집을 부렸다.

마침 그 나라에는 솔로몬같이 지혜로운 왕이 있었다.
두 사람은 왕에게 가서 누가 옳은지를 물어보기로 했다.
자초지종을 다 들은 왕은 옆에선 관졸에게
“저 미련한 놈의 불기를 쳐라!” 하고 명령하였다.
관졸은 갑돌이 어깨를 잡았다.
왕은 “그놈이 아니야. 사십팔이란 놈을 쳐라!” 하였다.
관졸, 을식이, 둘러선 신하들이 모두 어리둥절하여 왕을 쳐다보았다.

왕이 웃으면서 말했다.
“육팔이 사십칠이란 놈보다 그런 놈과 다투는 놈이 더 미련해!”

교훈: 유유상쟁 (類類相爭)

